

1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97.40	↑ 코스닥	718.04
	(+7.84)		(+9.83)
↓ 금리 (연이자율)	2.646	↓ 환율 (원/달러)	1461.75
	(-0.018)		(-9.05)



## 트럼프發 對中 규제... 세계 AI반도체 지각변동 신호탄

### 美, 수출관리규정 개정 발표

韓 등 18개국 '1등급', 규제 제외  
中·러시아 등 22개국 3등급 지정  
첨단 AI 반도체 칩·모델 원천차단  
장기적 기술 자립 가속화 전망도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과 운영에 필수적인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호국가에는 AI 반도체 접근을 완전히 허용하는 한편, 주요 적성국은 접근을 차단해 기술 개발에 차질을 주려는 목적이다.

14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우회 수출을 차단하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 발표하고, 120일 간 의견 수렴 기간에 들어갔다. 규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AR는 전세계 국가를 첨단 AI 반도체 접근 가능 범주에 따라 총 3개 등급으로 나눈다. 우리나라는 규제를 받지 않는 1등급 국가 18개국에 속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2등급 국가는 총 120여 개 국가로, 국가별 할당량에 따라 AI 반도체를 구입할 수 있다. 3등급 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 등 22개국은 미국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무기금수국은 허가 신청을 해도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

받는다. 미국 정부가 이번 EAR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미국의 독자적인 국가안보적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적성국으로 분류되는 러시아, 중국 등이 첨단 AI 반도체 칩과 모델 등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확보를 막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1등급 국가로 대부분 규제에서 면제되는 만큼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 소재 기업이라도 3등급 국가에 본사가 위치했을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대한 예상 영향력이 미미하다고는 하나 우리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공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어도 본사가 한국에 있는 만큼 당장의 큰 영향권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EAR가 AI 반도체 수출입 여부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구축에까지 등급에 상관 없이 비중 제한을 두고, 첨단 AI 모델까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1등급 국가는 해당 수출 통제에서 면제되지만 2등급 국가에는 통제가 적용된다.

더불어 한국의 잠재적 시장인 중국이 3등급 국가로 지정된 만큼 향후 중장기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업계의 설명이다. 시장 수요를 일부 소실하는 문제와 함께 중국의 기술 자립이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변론이 진행되지 않아 첫 변론기일은 4분여 만에 끝났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AI 반도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는 중국일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중국을 사면초가 상태로 밀어넣음으로써 중국 내 반도체 개발 속도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HBM3를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북풍 준비·계획 절대 없어 외환 용어는 軍 무시하는 것”

내란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야당, 내란·외환 혐의 특검 발의  
군 장성 직책 걸고 사전인지 부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등에 대해 1차 기관 보고를 받은 가운데, 군 장성들은 자신의 직책을 걸고 비상계엄 당시 외환 유치 시도가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내란 국조특위 기관보고를 받고, 김명수 합참의장에 야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군의 오물풍선 대응을 북풍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풍과 외환 유치를 이야기하는데, 군은 이를 준비·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이 절대 없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면서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외환이란 용어를 쓴 것은 전반적으로 군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토 방위란 신성한 임무를 하는 것이 군이고, 전방에서 추운 상태에서도 그들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풍이란 이야기를

쓴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수사 대상에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 외환 유치를 하려고 한 혐의도 포함했다.

강호필 지사사령관은 직책에 더해 자신의 계급까지 걸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2024년 6월 삼청동 안기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에서 역할을 맡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강 사령관은 “공개된 자리가기 때문에 제 대장 계급과 사령관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3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 美 자국 우선주의 확산...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트럼프, 200억 달러 투자 계획  
“8개 주에 데이터센터 들어설 것”  
MS 등 빅테크도 투자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주요 빅테크 기업들까지 자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며 데이터센터 확충에 나섰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 팜비치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투자로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최첨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애리조나, 일리노이, 인디애나 등 8개 주에 대규모 데이

터센터가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 주체는 아랍에미리트(UAE) 역만장자 후세인 사즈와니로, 부동산 개발업체 다막(DAMAC)의 창립자다. 트럼프 당선인은 사즈와니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업가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며 그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사즈와니는 트럼프 조직에 수백만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도 1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센터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해 6월까지 800억달러(약 117조7600억원)를 데이터센터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구글은 같은 기간 330억달러(약 48

조1536억원)를, 메타는 270억달러(약 39조4000억원), 아마존은 190억달러(약 27조7200억원)를 각각 AI 데이터센터 운영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도 자신의 AI 회사인 xAI를 위해 미국 전역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 처리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경영컨설팅사 맥킨지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오는 2030년까지 2500억 달러(약 35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계, 전기 시스템 조달과 설치 비용만을 고려한 수치로, 실제 투자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기자 hyem@

### 메트로 한줄뉴스



▲崔 대행, 日 외무대신 접견... “엄중한 국제정세에도 흔들림 없이 협력”  
▲외교부 “생포 북한군 귀순 표명 없어... 요청엔 우크라이나 협의”

▲홍준표 “트럼프 취임식 참석, 일정 조율 중”... 권성동·한동훈 불참  
▲윤 탄핵심판 공방... 국회 측 “신속한 파면만이 답” vs尹 측 “재판 공정성 의심”

▲국힘, ‘카톡 검열’ 전용기 제명 촉구안 제출... “국민 기본권 침해”  
▲민주 “김건희 황제 소환 이어 윤석열 황제 조사 꿈꾸나”



# 원자재·인건비 ‘깡충’… 아파트 공사비 평당 1000만원 시대

서울 반포 삼호가든 5차 입찰공고 공사비 평당 990만원, 총 2369억  
서초 잠원 신반포 22차 1300만원  
재건축 단지중 평당 공사비 최고가

최근 몇 년간 오르기만 했던 공사비가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공사비는 3.3㎡(평)당 1000만원 시대가 사실상 시작됐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쾅 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급화 움직임도 한 몫을 했다.

1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5차 아파트는 지난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재건축 예정 공사비는 평당 990만원으로 책정했다. 총 공사비는 2369억원 규모다.

1986년에 지어진 삼호가든5차는 기존 168세대에서 305세대로 재건축을 진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

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규모로 보면 크지 않지만 입지가 워낙 좋다보니 건설사들이 주목했던 곳이다. ‘반포리체(삼호가든 1·2차)’와 ‘디에이치반포클라스’(삼호가든3차), ‘반포씨밋’(삼호가든4차)에 이어 삼호가든아파트가

운데 마지막 주자로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9호선 사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삼호가든5차는 작년 7월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된 바 있다. 당시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2129억원 규

모다. 전체 공사비 증가분으로 추정된 평당 공사비는 900만원 안팎이다. 알짜 입지라지만 반 년 만에 10% 이상 올려 평당 1000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로 다시 시공사 찾기에 나선 셈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나 뛰었다. 최근 다소 안정됐지만 2024년 8월 기준 129.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환율과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볼 때 공사비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강남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합들이 하이엔드 브랜드와 커뮤니티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와 층간소음 등 강화된 규제 등도 모두 공사비를 올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 아파트도 평당 공사비를 950만원으로 제시해 시공사 선정에 진행 중이다. 고속터미널

역 초역세권 단지 12개동, 1800세대가 넘는 대단지다. 전체 공사비 규모만 1조310억원에 달한다.

인근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도 지난해 평당 공사비 950만원으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재건축 단지 가운데 평당 공사비가 가장 높은 단지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아파트다. 지난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공사비 평당 13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오른 공사비와 함께 기존 ‘힐스테이트’에서 ‘디에이치’로 하이엔드 브랜드로 변경한 점과 단지가 160가구로 소규모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비 최고가는 평당 1137만원이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건영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시공사 GS건설과 공사비를 평당 687만원에서 1137만원으로 증액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달러 초강세 속 원화 ‘바닥’… 물가상승 부추기나

달러 가치척정 ‘브로드달러인덱스’ 최근 130.05로 ‘사상 최고치’ 경신  
지난달 달러대비 원화가치 5.3% ↓

달러 가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반면 원화 가치는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의 루블화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타 통화 대비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진정세에 접어들었던 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한때 110.181까지 상승했다. 달러인덱스는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달러인덱스가 110을 웃돈 것은 1973년 도입 이후 4차례로, ‘킹 달러(달러 초강세)’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3년 11월이 마지막

이다.

미국의 26개 주요 무역 상대국 통화와 달러화의 상대 가치를 측정하는 브로드달러인덱스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명목 브로드달러인덱스(DTWEXBGS)는 130.05(2006년 1월=100)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달러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적대적 무역 상대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등 달러 강세를 촉발할 수 있는 경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시장 예측치를 크게 상회한 미국 고용시장의 호조도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 노동부는 지난 10일(현지시

간) 지난해 12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25만6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측치인 16만명을 10만명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시장 예측치를 크게 상회한 예측치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시카고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6월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44.6%로 전망했다. 이달 초 전망치는 25.5%였다.

달러가 ‘역대급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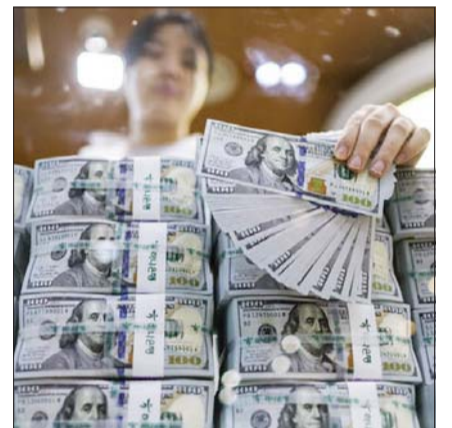
국회 기재위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미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5.3% 하락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통화 가운데 러시아 루블화(-6.4%) 다음으로 큰 낙폭이다.

같은 기간 일본 엔화는 -4.7%, 중국 위안화는 -0.8%의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23년 전체 기간으로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 폭은 15%에 달했다. 타 통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향후 국내 금리 정책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소비 부진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내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소비가 크게 위축됐던 지난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오는 16일 올해 첫 금통위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이 두드러지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부담스러운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계속된 환율 여파가 소비자물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이후 환율 상승은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0.05~0.1%p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달 CPI 상승률도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1면 ‘트럼프發 對中 규제…’서 계속

## 이공·인문 학술연구에 1조 투입… 후속세대 양성

교육부, 학술연구지원 종합계획  
인문 학술연구 지원에 4191억 투입  
석사 연구장려금 연 1200만원 지급

정부가 이공·인문분야 학술연구에 1조원을 투입한다. 석사 과정생에게 연 1200만원의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해 학술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총 1조149억원을 지원하는 202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총 사업비 1조149억원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는 4191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인문한국(HK) 3.0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2007년 시작한 인문한국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인문

학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이후에는 신규 과제가 없었지만, 올해 다시 추진한다.

신설되는 HK 3.0 사업은 10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0개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일 연구소를 지원하는 연구거점형과 여러 연구소가 연합체를 이뤄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합체형으로 수행된다. 연구거점형은 8개, 연합체형은 2개를 선정해 6년(3+3)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수 배치와 활용, 연구소와 프로그램 운영 등 규제를 완화해 대학과 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석사 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하고, 100명에게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

순수학문형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은 기존 14개 과제에서 올해 30개 과제 내외로 확충했다. 글로벌아젠다연구 지원도 6개 과제에서 7개 과제로 늘었다.

인문사회 분야 학부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기존 8개 연합체에서 2개 내외의 연합체를 신규로 선정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 및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예산도 기존 2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공 분야에는 5958억원이 투입된다.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석·박사 과정생 연구장려금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신규 과제 수가 기존 2172개에서

2700개로 늘어난다.

대학 연구 역량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대학연구기반 구축 사업도 국가연구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글로벌 랩 등을 주축으로 한 ‘대학연구혁신 100’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추진한다. 국가연구소에는 연 100억원, 대학기초연구소에는 연 50억원, 글로벌 랩에는 평균 연 17억원이 투입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의 기초학문이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야 하는 만큼 기초학문 분야 학문후속세대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다양한 학술연구가 현장에 정착해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 수출입에 과잉 관여 글로벌 IT기업 반발

글로벌 IT기업들도 이번 조치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일개 국가 정부가 수출입에 과잉 관여한다는 주장이다.

엔비디아는 즉각 반발하고 대관담당 부사장인 네드 핀클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엔비디아 측은 “이번 조치는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압함으로써 미국이 어렵게 얻은 기술적 이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혁신과 경쟁, 그리고 전 세계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지, 정부의 과잉개입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블로그에서 “미국 기술업계를 타격할 역대 가장 파괴적인 규제도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신세계, 자회사 연결망 강화... '물류·e머커스' 새판 짬다

계열사 간 상품 연동 확대  
CJ대한통운 물류망 공유  
협업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신세계가 자회사 연결망 강화에 나섰다. 배송 물류망 공유와 상품 채널 확대라는 두 축을 통해 실적이 부진했던 자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자회사들이 CJ대한통운의 물류망을 공유하며 빠른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더해 계열사 간 상품 연동을 확대해 그룹사 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 신세계그룹 계열 e커머사인 G마켓이 우수 상품을 SSG닷컴에 연동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동 서비스는 G마켓의 판매 관리 사이트인 이플러스(ESMPLUS)를 통해 이뤄진다. G마켓에 등록된 상품은 그대로 SSG닷컴에 노출되며 상품 정보 수정 및 배송, 고객 문의 답변 등도 연동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지난달 22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 ◆ 신세계그룹의 'G마켓 구하기'

SSG닷컴과 G마켓 간 상품 연동을 두고, 신세계그룹이 실적 부진을 겪는 G마켓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업계 분석이 나온다.

G마켓은 이커머스 시장 불황 속에서 계속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G마켓의 카드결제 금액은 387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해 카드 결제폭이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카드결제 금액이 지난해 대비 3% 증가한 쿠팡과 지난해 대비 6% 오른 CJ온스타일과 대비되는 실적이다.

SSG닷컴과 G마켓의 채널을 공유해 상품 노출률을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재고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G

마켓 관계자는 "신세계 관계사 시너지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서비스로 G마켓 판매고객에게는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여 추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판매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빠른 배송 서비스 확대

신세계그룹은 상품 연동 외에도 CJ대한통운과의 협력을 통해 자회사들이 빠른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먼저 SSG닷컴은 CJ대한통운의 물류망을 활용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충청권으로 새벽 배송을 확대했다.

당시 SSG닷컴 관계자는 "이번 권역 확대는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이 맺은 사업제휴 합의 성과로 CJ대한통운이 보유한 물류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역시 CJ대한통운 물류망을 공유하며 배송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지난 10일 '오늘 도착'과 '일요일 도착'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오늘 도착'은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 배송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당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일요일 도착'은 토요일 주문 상품을 일요일에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신세계라이브쇼핑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CJ대한통운과 협업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상온 및 저온 물류센터를 활용해 배송 상품에 적용됐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의 이같은 행보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연 매출액은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신선식품 시장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경쟁사들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현재 신선식품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더 강력한 배송망과 업종 간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차원에서 신세계그룹이 계열사의 역량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CJ제일제당, '퀴진케이' 글로벌화... 한식 생태계 확장

'한식 전도사 양성 플랫폼' 진화  
비비고 제품 활용 요리대회 지원

CJ제일제당이 퀴진케이(Cuisine.K)의 커리큘럼 고도화를 통해 '한식 전도사 양성 플랫폼'으로 한 차원 더 진화한다.

CJ제일제당은 '2025 퀴진케이 닷츠데이'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명인 닷츠(DOTS)는 Dreams, Opportunity, Together, Start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젊은 셰프들의 꿈을 키우고 지원하는 퀴진케이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전날 열린 행사에는 2023년 출범 이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영세프와 멘토 셰프,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등이 참석해 자유로운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퀴진케이 알럼나이(Cuisine.K Alumni) 2기가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CJ제일제당

퀴진케이는 한식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CJ제일제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젊은 한식 셰프 육성 및 한식 문화 전파를 통한 K-푸드 위상 강화라는 목표 아래 ▲한식 팝업 레스토랑 운영 ▲한식 파인 다이닝 실습(K-스타주) ▲한식 명인,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식자재 연구 클래스(마스터 클래스) ▲요리대회 후원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5월 퀴진케이 프로젝트 출범 후 약 1년 반 동안 200여 명의 한식 영세프들을 지원하며 한식 저변 확대 기여는 물론, K-푸드 인재 발굴 및 육성에 힘써왔다. 그 결과 퀴진케이 프로젝트 출신의 첫 오너 셰프가 탄생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이 지난해까지 퀴진케이 프로젝트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셰프 육성 과정을 구축한다.

먼저 팝업 레스토랑의 첫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한식 파인 다이닝 실습 프로그램인 K-스타주는 해외 셰프를 대상으로 한국의 총체적인 식문화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강화하고, 해외에서 한식 영세프들이 직접 시연하는 K-푸드 쿠킹클래스 등도 계획 중이다. 해외 요리학교와 협력해 글로벌 K-푸드 대표 브랜드인 '비비고' 제품을 활용한 K-푸드 요리대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프들의 소모임인 '퀴진케이 살롱' 운영을 통해 한식 R&D를 적극 지원하고, 퀴진케이 프로젝트 지원 대상을 영세프 뿐만 아니라 소믈리에, 서비스 직군 등으로 확대해 한식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울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1면 '북풍 준비·계획...'서 계속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운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계엄 임무 지시 없었다'

강호필 지상사령관은 "(지난해) 6월 안가 모임은 사적 모임에 간 것이 6월 단 한번"이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락이 와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참석해달라고 대통령께서 요청했다고 해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신의 검사 시절 일화들,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전체의 80~90%를 이야기했고 식사하면서 주는 술 먹는 술자리였다"라며 "무거운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관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군인들이 각자 맡은 직책을 다하고 있고 통수권자에 충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방력동원 관련해 제가 계급과 직책, 개인적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2·3 계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저작사에 임무를 쫓거나, 병력 출동 임무를 쫓거나 역할을 하라고 지시받은 바 없다"며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저작사 예하 내부 인원이 제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285@

# 崔 대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 가중 시킬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고에서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또한 설 연휴 전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

황에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돼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정부·여당은 초중등교육 예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 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연장을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에 대해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초고령층 등 금융고객 관리 강화 비은행 혁신기업 투자·제휴 확대

하나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에 대비해 고객 범위를 확대하고, 리스크 관리와 엄격한 내부통제,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내실을 다지겠다는 포석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본연의 업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하나금융그룹

### ③ 함영주 회장

#### ◆ 초고령사회 선제 대응… ‘하나 더 넥스트’ 사업 재편

우선 하나금융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하나은행의 자산관리그룹을 ‘하나 더 넥스트(HANA THE NEXT)’ 사업 중심으로 재편했다. 하나 더 넥스트는 은퇴 설계부터 상속·증여, 건강관리까지 고령층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앞서 하나은행은 시니어 손님들에게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특화 점포’를 신설한 바 있다.

#### 특화 점포 신설… 차별화 공간 제공 은퇴 설계 등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내부통제 위한 책무구조도 마련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우리나라는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지금까지 은행의 주 고객 연령층이 30~50대였다면, 60대 이상 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함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고령화와 저출생과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더디 가더라도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7월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에 참석해 ‘하나금융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 내부통제 강화

내부통제 관리도 본격화한다. 앞서 하나금융은 최근 4년간 그룹 표준 내부통제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자회사별로 분산됐던 내부통제 시스템을 그룹 집중형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했다.

함 회장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기일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점검 실효성이 확보돼 그룹 내부 통제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하나금융은 내부통제를 위해 책무 구조도도 마련한 상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시 임원들의 책임을 나누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서다.

함 회장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엄격

한 내부통제, 효율적인 비용집행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 ◆ 비은행 강화, M&A보다 계열사 협업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간 협업은 늘리고, 인수합병(M&A)의 속도는 줄인다.

앞서 하나금융 계열사 하나카드는 해외 이용특화서비스 ‘트래블로그’를 앞세워 계열사와 협업을 확대한 바 있다. 트래블로그 카드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자, 자금보관 업무는 하나은행에서, 해외여행을 위한 여행자보험은 하나손해보험에서 하도록 연계한 것이다.

함 회장은 “그룹 내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계열사간 시너지를 확대하고,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장의 손해가 불가피 하더라도 협업했을 때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반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던 인수합병(M&A)의 속도는 조절한다. 최근 몇 년간 인수합병 시장에서 비은행 금융사 매물이 나오면 유력한 인수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것과는 다른 행보다

함 회장은 “M&A가 단순히 규모를 키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며 “자생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M&A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직에 심각한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내 주계열사인 하나은행은 과거 외환은행의 인수로 외화부채 규모가 크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시기에 무리한 인수합병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를 통해 비은행 부문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 M&A 속도 조절… 리스크 완화 비은행 부문 계열사간 협업 확대 함 회장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함 회장은 “비우호적인 시장 여건을 타하거나, 회사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낮은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을 당연시하는 인식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열린 시각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자”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하나은행은 중장년층 손님들의 업무 편의성 향상과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했다. 객장 안에는 중장년층 손님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큰 글씨와 단순화된 화면의 ‘창구 번호 표시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4월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신축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을 개관했다. 하나 인피니티 서울은 총 2096㎡(약 634평), 126석의 국내 최대 규모 딜링룸으로 24시간 365일 운영을 위해 최첨단 인프라 중심의 효율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 /하나은행



#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 에너지를 찾아라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도약합니다

펼쳐진 지도 속 더 나은 내일을 향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QR 코드를 찍어 접속해 10개의 숨은그림을 찾아보세요!





# 尹 체포 코앞... 대통령실, 여론전으로 보수진영 결집 호소

정진석 비서실장, 대국민 호소문 “제3의 장소 조사 검토할 수 있어” 구속 저지, 실질심사 대비 목적 해석 대통령실 변호인단과 입장 갈려 경호처, 영장집행 저지 뜻 밝혀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신자유연대 등 참가자들이 대통령 수호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임박한 14일 보수 진영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한달 넘게 사실상 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문은 보수진영의 최종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통령경호처는 2차 체포영장도 저지할 의지를 표하면서, 이르면 15일 이뤄질 체포영장 집행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6시11분에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나온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부당하며,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 수사본부가 공성전 준비를 끝냈다”며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 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정 비서실장은 호소문 말미에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 비서실장이 새벽에 급하게 대국민 호소문이 발표한 것은 윤 대통령의 체포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경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해 최대 1000명 안팎의 경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하고, 그 후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투입되는 경찰은 형사기동대, 안보수사대, 마약수사대 등이 있다. 조직폭력배, 간첩 혐의 피의자, 마약 범죄자 등을 담당하는 수사대인 것이다. 다만 물리적 충돌 등을 피하기 위해 2박3일 정도로 천천히 관저를 차지해 나가는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여론전에 나선 것은 강성 보수 지지층이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달라는 호소로 보인다. 최근 여론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가 여러 발표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구속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15일 새벽에 관저 앞에 보수 지지층이 모여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제3의 장소’를 언급한 것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우선 저지하고, 향후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경찰 등 조사에 임했다는 것을 이유로 방어할 수 있어서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 비서실장의 제3의 장소 등 조사 방식 제안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어떤 형태의 조사에도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변호인단의 입장이 같진 않다. 일각에서는 정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에게 제3의 장소 등 조사에 응하는 방향으로 건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뜻이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과 3개 기관 간 협의를 한 이후 입장문을 배포했으며, 협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국민의힘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 野와 협의하겠다”

與 이탈표 발생 우려에 자체안 마련 野 협상 거부 시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국민의힘은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여당 안(案)인 ‘계엄 특검법’과 야당 안인 ‘내란 특검법’을 놓고 협상하자고 14일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

담회에서 “계엄 특검법에 대해 원내지도부는 어제(13일) 의총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은 수용하지 못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각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에 따르면 계엄특검법은 민주당 안에서 문제가 됐던 일반 국민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내란 특검법이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는

데,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서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재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연장 30일로 수사 기한을 정한 것과 달리 계엄특검법은 상설특검법에 준해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

일, 연장 30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 외에 나머지 사건 관련자는 구속기소돼서 재판중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수사대상이 많지 않아서 상설특검법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야당의 각종 특검 발의와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자체안을 마련한 것은 추후 이탈표가 더 발생해 민주당의 특검안이 재표결에서도 통과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하나님의 교회 설립

# 61주년 2025 희망의 기호를 더 높이

새 언약 유월절(逾越節, Passover) 진리와 사랑으로 세계인의 가슴마다 희망을 심어온 60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희망의 기호를 높이 들며 더 밝은 새 역사의 첫 해를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 인류를 품어 안으며 화합과 평화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Happy New Year! God bless you!**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한국을 방문한 제81차 해외성도방문단이 각국 언어로 전세계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 D-3... 삼성 vs 현대 승자는?

용산 1.5조 대규모 재개발 사업 오는 18일 최종 시공사 선정

공사비 절감에 금융 지원까지 두 건설사 두 달 간 역대급 경쟁 홍보관 위반 등 과열 양상도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맞붙은 ‘한남4구역(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최종 승자에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최종 시공사 선정은 오는 18일 이뤄진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16만㎡ 부지에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해 총 2331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알짜’ 사업이다. 총 사업비 1조 5723억원 규모에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수주가 추후 대규모 정비 사업 확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 분석이다. 압구정, 성수, 여의도 등 인근 지역에서 진행될 정비사업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금융혜택·커뮤니티 시설... 파격 조건

업계 시공능력순위 1·2위인 두 건설사는 금융혜택부터, 한강 조망권, 초호화 커뮤니티 시설까지 두달여간 역대급 제안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남4구역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제안한 ‘래미안 글로우 힐즈 한남’(위)과 현대건설이 제안한 ‘디에이치 한강’ 조감도. /삼성물산·현대건설

가장 먼저 공사비를 낮춰 조합원들의 부담감을 덜겠다는 내용을 앞세웠다.

삼성물산은 착공 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314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조합 책임액보다 868억원 낮은 공사비로 조합원 1인당 약 72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약속했다.

금융 지원도 파격적이다. 삼성은 ▲분양수입 1583억원 ▲금융비용 1185억

원 절감 ▲세부 공사항목 120억원 우위 등을 통해 전체 약 2900억원, 조합원 세대당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에는 ▲사업비 전액 금리 상승 시에도 변동없이 양도성예금증서(CD)+0.1% 책임조달 및 지급보증 등을 내걸었다.

최근에는 럭셔리 커뮤니티 및 부대시설 제안으로 조합원 막판 표심 잡기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은 테라스형 세대와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구조 등 차세대 평면을 제안했다. 단지 내 조경을 앞마당 처럼 누릴 수 있는 테라스 정원 하우스, 12개의 창으로 즐기는 시네마틱 조망의 더블 테라스 하우스, 3개층으로 구성된 트리플렉스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테라스형 평면을 내놨다.

현대에는 블록마다 스카이라이프 커뮤니티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30블록의 커뮤니티에는 대형 패밀리 수영장과 한강 조망 인피니티 풀을 갖춘 워터 테마형 공간 ‘글로리 리버 베이’가 만들어진다. 190m 길이의 스카이라이프에 설치된 ‘스카이라이프 인피니티 풀’에서는 한강을 바라보며 수영할 수 있다.

◆ 경쟁 과열에 비방까지

한남4구역 수주를 두고 과열된 경쟁은 시공사 선정 기준 위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을 보면 ‘모텔하우스, 무대, 파라솔, 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하는 일체금지’다. ‘단, 조합이 제공하는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 1개소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기준은 공공재개발에 관한 규정으로 나와 있지만 민간재개발 역시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삼성과 현대는 각각 홍보관을

개관했다. 이에 조합 측은 기준 위반에도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을 때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역시 조합에서 안내한 대로 운영한다고 답변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권고사항일뿐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다”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행정 계도나 주의 정도는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두 건설사는 14일 홍보관을 조기 폐관한다.

◆ “변하지 않는 가치에 주안점 뒀어”

경쟁이 과열될수록 조합 입장에서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다만 위와 같은 조건들이 입찰 선정 후에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삼성 측은 미분양 시 대물변제 조항에 ‘급격한 시장변동 시 복리시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방식, 가격 등은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현대 역시 책임준공 약약에서 ‘천재지변, 내란 및 전쟁, 전염병 등 당사의 책임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책임준공할 것을 약속합니다’란 문구를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두 건설사의 조건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결국 ‘래미안’과 ‘디에이치’ 브랜드를 놓고 더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지원 기자 jiw13@metroseoul.co.kr

## OK금융,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쟁걸음’

대부업 철수로 인수 걸림돌 해소 인천·경기권·충청권 시너지 기대 PF부실 등 매각압박 속 가격 주목



경에는 상상인그룹 저축은행 인수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다.

OK금융은 지난 2023년 본격적으로 종합 금융그룹으로의 초석을 다졌다. 지난해 10월에는 OK저축은행의 모회사인 OK홀딩스대부가 특허청에 ‘OK증권’ 출원하는 등 사업확장 행보를 보였다.

이달 OK금융은 상상인저축은행에 관한 실사를 완료했다. OK금융의 인수 의지와 최종 논의만 남은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상상인그룹 저축은행 두 곳을 두고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평가한다. 자산 규모 뿐 아니라 OK저축은행과 함께 영업할 경우 시너지를 내기에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상상인그룹은 인천·경기권을 거점으로 영업하는 상상인저축은행과 함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충청)을 보유하고 있다.

OK금융이 해당 저축은행 두 곳을 인수하면 충청권 사업 확장과 함께 인천·경기권에 진출한다. ▲서울 ▲경기·인

천 ▲충청 ▲호남 등 4곳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경기·인천소재 산업단지는 총 217곳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체 산단의 16.4%를 차지한다. 저축은행의 주 고객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셈이다.

매각금액이 인수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인그룹의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라 의견이다. 현재 상상인그룹은 금융위원회의 저축은행 매각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지불 기간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에 건설성 지표 또한 악화했다. 지난해 9

월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고정이자여신비율은 각각 22.27%, 25.49%다. 금융당국의 권고치(11%)를 훌쩍 넘긴 수치다. 아울러 상상인그룹이 저축은행 영업을 축소하면서 거래자가 연간 1만4037명 이탈했다.

OK저축은행의 거래자수(119만 2001명)와 합쳐도 SBI저축은행(172만 7814명)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구체적인 매각가는 안갯속이다. 과거 우리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했지만, 가격 협상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의 강점은 수도권 영업과 자산규모 등에 있다”며 “상상인의 경우 그룹 차원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협상을 장기전으로 이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1분기 국내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추고, 기업대출 높인다

가계주택지수 ‘6’... 플러스 전환 대·중소 대출태도지수 -3 집계

금융회사들이 올 1분기(1~3월)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고, 기업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부동산·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마이너스(-) 1로 전망됐다. 지난해 4분기 -27에서 대폭 줄었다.

대출태도지수는 국내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 동향과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대출태도 지수가 플러스(+)면 대출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이 많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면 대출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이 많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과 비대면 신용대출 문턱을 낮출 전망이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가계주택지수는 6으로 지난해 4분기 -42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가계일반지수도 3으로 전분기(-39)과 비교해 대폭 완화됐다.

반면 기업의 대출문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집계됐다. 전분기와 비교해 각각 8포인트(p), 13p 완화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자본적성 관리, 부동산·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여신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1분기 신용위험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우리금융, 美 데이터센터 1.5억 달러 투자

佛 나틱시스와 업무협약 후 첫 성과 글로벌 PE역량 강화로 시너지 창출

우리금융그룹이 전략적 파트너인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와 함께 미국 데이터센터 두 곳에 1억5000만 달러(약 2100억원)를 공동 투자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우리금융이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NATIXIS CIB)와 ‘글로벌 사모대출 펀드(Global Private Debt Fund) 조성’과 상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성과다.

이번 공동 투자는 우리PE자산운용의 해외펀드 운용 경험과 우리은행 IB

그룹의 글로벌 투자 노하우가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한 사례다. 또한 나틱시스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 사모대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 구조 설계와 실행을 지원했다.

투자대상은 미국 애리조나 데이터센터(176MW 규모)와 버지니아 데이터센터(110MW 규모)이다. 두 시설 모두 아마존과 15년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다.

강민국 우리PE자산운용 대표는 “우리PE자산운용의 해외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PE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금융 계열사 간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 美·유럽 등 해저케이블 수요 증가 전선업계, 실적개선 기대감 고조

전력인프라 투자 지속 증가  
2029년 30조 규모 시장 전망  
업계, 수주 확대 등 입지 강화

지난해 잇달아 수주 실적을 올린 전선업계가 올해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LS전선, 대한전선 등은 전기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전략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해저케이블 수요가 늘어난 점도 호실적의 요인으로 주목받는 대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해저케이블 수요는 지난 2022년 6조4000억원에서 오는 2029년 29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신규 전력 기반 투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LS전선이 분석한 미국 해저케이블 공급 현황에 따르면 2030년 현지 해저케이블 수요는 1160km에 달하는 반면 공급량은 750km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업계는 수요는 크지만 현지 공급망이 부족한 미국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

비치고 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내 제조업과 AI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도 전선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I 확대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따라 전력망 인프라 구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2024년 10월 점증하는 기상 이변 위협으로부터 전력망을 보호하고 송전을 확대하기 위해 42개 주에 걸친 38개 프로젝트에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추가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15억 달러(약 2조230억원) 규모의 신규 송배전망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전선업계는 대형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며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LS전선의 수주잔고는 지난 3분기 기준 5조70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했다. 회사는 지난 2024년 12월 미국에서 총 4400억원 규모의 해저케이블을 계약했다. 네덜란드 구영전력회사 테네트가 입찰한 약 9037억원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대한전선 역시 수주 실적을 늘리고 있다. 대한전선의 수주잔고는 지난 3분기 기준 2조32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3% 급증했다. 대한전선은 지난 10일 글로벌 인프라 그룹인 발포어 비티가 영국 동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에 400kV(킬로볼트)급 전력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수주 금액은 1000억원 규모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전력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원자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힘든 상황을 우려하는 지적도 따른다. 다만 업계에서는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안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원자재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4분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구리 등 원자재는 미리 몇 달 치 물량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원자재 공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폭스바겐 쿠페형 순수 전기 SUV ID.5.

## 폭스바겐, 2025년형 ID.4·ID.5 사전계약

국내 최초 ID.5 수입

폭스바겐코리아는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ID.4’와 브랜드 두 번째 전기차 ‘ID.5’의 2025년형 모델 사전계약을 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쿠페형인 ID.5는 이번에 처음 국내에 수입되며 폭스바겐코리아가 2022년 선보인 ID.4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하는 전기차 모델이다.

ID.5는 폭스바겐 전기 SUV의 우수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쿠페 스타일을 가미한 모델이다. 휠베이스가 2765mm에 달해 실내 공간이 동급 대비 여유로운 편이다. 유선형의 쿠페 디자인으로 공기저항계수(Cd)를 0.26까지 낮췄다. 그러면서도 2열 좌석 헤드룸과 다리 공간을 확보해

거주성을 강화했고, 기본 549L, 시트 폴딩 시 1561L인 트렁크 용량을 구현했다.

ID.5는 1회 충전 시 복합 434km(도심 460km·고속 402km)의 주행거리를 인증 받았다. 정부 공인 에너지 소비 효율 또한 복합 5.0km/kWh(도심 5.3km/kWh·고속 4.6km/kWh)를 자랑한다.

2025년형으로 돌아온 ID.4는 향상된 전기 드라이브 시스템이 탑재됐다. ID.4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424km(도심 451km·고속 391km)를 인증받았으며, 정부 공인 에너지 소비효율은 복합 4.9km/kWh(도심 5.2km/kWh·고속 4.5km/kWh)다. ID.4와 ID.5 모두 최대 175kW급 급속충전을 지원해 약 28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수출 70만대 돌파

하이브리드 모델 등 글로벌 호평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기록

현대자동차·기아가 지난해 친환경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순수 전기차(EV) 시장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진에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차(HEV)가 한국 자동차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수출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HEV와 EV 등 친환경차 수출이 전년 대비 3% 증가한 70만7853대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이전 최대인 2023년 수출을 넘어선 친환경차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다.

27만여대를 수출한 2020년과 비교하면 160%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수출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7% 수준에서 32% 이상으로 확대됐다.

현대차·기아 친환경차 중 최다 수출 모델은 9만3547대가 수출된 현대차의 투싼 하이브리드였다. 이어 ▲코나 하이브리드 7만353대 ▲아이오닉5 6만8227대 순으로 수출했다. 기아 수출은 ▲니로 하이브리드 6만9545대 ▲EV 64만2488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3만8297대 순이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전년 대비 44.6% 증가한 39만7200대에 달했다. 전체 친환경차 수출 중 56.1%에 해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당하는 실적이다. 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글로벌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 코나 하이브리드는 독일의 자동차 전문 매체 ‘아웃도 빌트’가 진행한 비교평가에서 토요타의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를 넘어섰고,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는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이 발표한 ‘2023 최고의 차 어워드’에서 경쟁 모델들을 제치고 최고의 차 자리에 오른 바 있다.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전체 수출 대수는 218만698대, 수출액 533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대수, 수출액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출 200만대, 수출액 500억 달러를 넘기며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다.

현대차·기아가 기록한 수출액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록한 전체 수출액

6838억 달러 중 7.8%에 해당하며, 자동차 전체 수출액 708억 달러 중에는 75.4%에 달하는 규모다. 차종별로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전체 수출 대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SUV 비중은 69.1% 수준으로 150만6287대가 수출됐다. 최다 수출 모델은 23만1069대를 기록한 현대차의 아반떼가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지역 다변화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 비중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55.6% ▲유럽 18.7% ▲아시아·태평양 9.1% ▲중동·아프리카 9.1% ▲중남미 5.2% 등으로 글로벌 전역에 수출되고 있다.

이로써 현대차·기아의 누적 수출 대수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5600만여대를 기록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 LG전자, 2025년형 에어컨 신제품 출시

AI 에이전트 ‘LG 퓨른’ 탑재

LG전자가 2025년형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I(사진)’과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부이 프로’ 등 에어컨 신제품을 14일 출시했다.

이 신제품은 AI가 사용자와 교감하며 최적의 냉방 환경과 청정 관리를 제공하는 ▲AI음성인식 ▲AI바람 ▲AI흡모니터링 ▲AI열교환기 세척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AI 에이전트 ‘LG 퓨른’을 탑재한 신제품의 ‘AI음성인식’은 단순 음성 명령을 넘어 고객 의도를 파악해 제품을 제어한다.

레이더 센서를 통해 AI가 고객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온도를 학습해 최적의 냉방을 제공하는 ‘AI바람’ 기능도 적용했다.

AI를 활용한 에어컨 청정 관리 성능도 업그레이드했다. ‘AI열교환기 세척’은 AI가 습도·온도 센서로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해 열교환기 오염도를 파악하고 자동으로 세척한다. 제품을 분해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자동으로 세척해 위생 관리가 한층 편리해졌다.

이밖에 고객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을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 HD현대,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 제작

소재 선정·검증, 용접 기술 모두 확보

HD현대가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 제작 및 진공단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수소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로이드선급(LR)·미국선급(ABS)·노르웨이선급(DNV)·한국선급(KR) 등 국제선급협회(IACS) 소속 4개 선급으로부터 ‘액화수소 탱크의 진공단열 기술에 대한 기본승인(AIP)’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에는 노르웨이선급으로부터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 제작을 위한 용접 절차(WPS)’에 대

한 승인도 완료했다.

이로써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최초로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의 소재 선정 및 검증, 용접 기술을 모두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진공단열 기술의 독자 개발에도 성공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새롭게 개발한 진공단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선박 운항 중에도 253℃의 극저온 환경에서 액화수소 탱크의 단열 공간을 진공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다량의 액화수소를 손실 없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 또한 탱크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단축해 기존 수개월이 소요되던 작업을 수일 만에 끝마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 고도화된 'AI 홈' 부터 '인간형 로봇'... 미래 일상 현실화

## CES 2025 성료

AI·로봇 기술의 일상화 선언  
삼성·LG,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  
초개인화 스마트홈 기술 공개  
자율주행·모빌리티 혁신 선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가 14만여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는 하드웨어 보다는 일상생활에 접목한 AI 홈(home) 기술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며 한층 현실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보였다.

14일 CES 주관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지난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는 총 14만1000명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13만 5000명보다 약 5% 늘어난 수준이다. 참가국 기준으로 미국이 1500여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중국(1300여개), 한국(1000여개)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역대 처음으로 삼성·현대차·SK·LG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신성장 사업 물망  
올해 CES에서는 AI는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요소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난 8일(현지시각)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 'CES 2025' 유니트리 전시관에서 유니버설 휴머노이드 로봇 H1이 방문객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시

AI를 더한 '로봇'이 시장을 재패할 신 사업으로 본격 소개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행사의 첫 기조연설을 통해 AI 로봇을 성장 산업으로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연이어 참전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내 양대 전자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초개인화 기조 아래 로봇비서 출시를 공식화하며 휴머노이드 로봇의 서막을 알렸다.

삼성전자는 AI 비서 로봇 '볼리'의 상반기 출시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오는 5~6월 중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먼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볼리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컨트롤하고, 아이와 반려동물 등을 살피는 역할도 한다. 홈트레이닝 메이트는 물론 재택근무 시 보조스크린 역할을 하는 등 집사 역할을 맡는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데 이어 한층 더 고도화된 AI 기술을 접목한 가전제품을 앞다퉈 공개하며 초개인화된 스마트홈을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주제로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가족의 맞춤형 집인 '홈 AI'를 제시했다. 가전은 냉장고 내부 식재료를 카메라가 자동 인식해 식품 목록을 만들어주는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와 퇴근 시간에 맞춰 바다 청소를 대신해주는 '비스포크 AI 스팀' 등을 전시했다.

LG전자 역시 '가사 해방'에 목적을 둔 휴머노이드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LG전자는 이동형 AI홈 허브 'Q9'의 제품과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오는 2~3월에 개발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연구개발(R&D)은 휴머노이드를 포함해 기술을 준비 중으로 로봇 사업을 위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에 6000만달러(약 800억원)를 투자해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다.

## ◆고도화된 AI가전부터 미래 모빌리티 공개

양사는 한층 더 고도화된 AI 기술을 접목한 가전제품을 앞다퉈 공개하며 초개인화된 스마트홈을 내세웠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주제로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가족의 맞춤형 집인 '홈 AI'를 제시했다. 가전은 냉장고 내부 식재료를 카메라가 자동 인식해 식품 목록을 만들어주는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와 퇴근 시간에 맞춰 바다 청소를 대신해주는 '비스포크 AI 스팀' 등을 전시했다.

가전에 탑재된 AI 음성비서 '빅스비'도 업그레이드 했다.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대화가 가능해졌고, 한 문장의 명령어로 여러 기기를 한 번에 제어한다. 가족 구성원 목소리를 인식해 개인별 일정 알려주기도 한다. 냉장고 속 유

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파악하고 음식 레시피도 제안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홈 AI를 구현하는데 있어 보안을 최우선으로 했다. 삼성 녹스 매트릭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로, 연결된 기기들이 보안 상태를 상호 점검하다가 외부의 위협이 감지되면 해당 기기의 연결을 끊고 사용자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려 준다.

LG전자는 집, 사무실, 차량, 취미 공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공감 지능'을 통한 맞춤형 경험을 내세웠다.

LG전자의 AI 홈 존에서는 생생형 AI를 탑재한 'LG 씩큐 온(ThinQ ON)'과 온디바이스 AI 기반 허브 제품이 집안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고객의 행동과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IoT 기기를 최적으로 제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심박수나 호흡 상태를 분석해 냉수 대신 온수를 제안하거나, 자동으로 집안 온도와 습도를 조절한다.

또 77형 무선·투명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를 활용한 초대형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다. 이 기술은 무선 전송과 투명 디스플레이의 융합으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며, 혁신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전기 동력을 접목한 혁신 기술이 돋보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삼성, 더 개인화 된 갤럭시링 14·15호 선보

### 신규 2종 더해 총 11개 사이즈 '삼성 헬스' 앱 기능 업데이트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제품 '갤럭시링' 신규 사이즈 2종을 오는 24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사이즈는 14호(직경 23mm)와 15호(23.8mm)다. 이에 따라 갤럭시링은 5호부터 이번에 출시된 14·15호까지 총 11개의 사이즈로 구성된다. 색상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 색상 가운데 고를 수 있다. 가격은 49만 9400원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월부터 일본, 체코 등 15개 시장에도 추가 출시한다. 이에 총 53개 시장에서 판매한다.

센서 기술을 탑재한 갤럭시링은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갤럭시링을 통해 측정된 건강 정보와 건강 팁(TIP)은 삼

성 헬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더욱 개인화된 수면 경험을 통해 종합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삼성 헬스' 앱 기능 업데이트 했다. 삼성 헬스 앱은 기존에 지원하던 사용자 수면 단계 분석과 함께 '마음챙김' 기능과 수면 관련 기능 2가지를 추가 제공한다.

마음챙김 기능은 사용자가 더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기분 추적, 호흡 가이드, 명상 프로그램 추천 등을 삼성 헬스 앱의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 제공한다.

수면 환경 보고서 기능은 삼성 헬스 앱과 스마트싱스 앱을 연계해 구현하는 기능으로 상반기 내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스마트싱스 앱에 연

결된 기기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로 실내 온도, 습도, 공기 질, 빛의 세기 등 수면 환경을 분석한 후,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최적의 수면환경을 추천한다.

또한 삼성 헬스 앱이 수면 습관과 수면 기록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취침 시간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다. 이 기능은 하반기 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갤럭시링' 신규 사이즈 2종 /삼성전자

## 티맵에 가게 등록하고 네이버 포인트 받자

티맵모빌리티 내달 28일까지 이벤트 업체 1개당 네이버페이포인트 1만원

티맵모빌리티가 티맵(TMAP)에 업체 정보를 등록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네이버 포인트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티맵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티맵의 사업장 관리 서비스인 '비즈 플레이스'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비즈 플레이스 홈에서 본인의 사업장을 검색한 후 새롭게 업체를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업체가 있다면 '사장님

등록하기'를 진행하면 된다. 업체 필수 정보로는 매장 사진, 영업 시간, 주차 정보 등이 요구된다. 일부 업종은 메뉴 정보까지 추가 입력해야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사업주 전원에게는 업체 1개당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이 제공된다. 응모 시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기준으로 최대 5곳(5만원)까지 지급된다.

보상은 3월 31일 이내에 모바일 쿠폰 형태로 발송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 지상파 3사,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

하이퍼클로바 X 개발 과정 무단으로 기사 데이터 사용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학습 과정에서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39개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이하 방협)는 지난 13일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협회는 지난 2023년 12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MS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콘텐츠뿐 아니라 모든 오디오, 영

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전 경고했다.

회원사 법무팀·지식재산권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방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 이에 방협회가 네이버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韓 ICT수출 작년 역대최고... 반도체 주도

지난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액이 235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영향이 컸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연간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2350억달러, 수입은 1432억달러로 무역수지는 918억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ICT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월간 수

출액이 200억달러를 상회하면서 2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가 AI 수요 증가로 실적을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42.5% 증가한 1420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시스템 반도체도 첨단 패키징 수출 확대에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이혜민 기자 hyem@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 “은행株, 저가매수 기회”… 환율 리스크에도 주주환원 기대감

KRX은행지수, 이달 3.7% 올라  
外人 매도세 약화… 순매수 전환  
업종 불확실성 주가 조기 반영 돼  
올해 코스피 대비 높은 상승세 전망

최근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은행주들이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자본비용 하락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기대로 은행주의 반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KRX은행지수는 3.7% 상승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KB금융이 7.12% 상승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고, 신한지주(3.88%), 하나금융지주(2.11%), 우리금융지주(0.97%)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정치적 불확실성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 은행주들이 10% 넘게 하락했던 상황과는 대조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은행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미지.

적인 모습이다.

이번 반등은 저가 매수세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를 각각 598억원, 42억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들도 신

한지주 535억원, 하나금융지주 115억원을 사들이며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현저히 약화되고, 일부 순매수로 전환되

고 있다는 점에서 순매도세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수급상의 우려 요인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주 주가 조정 현상도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은행의 주주환원 여력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 하락이 예상되면서 밸류업 계획 이행 가능성에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업계에서는 2월 초 실적 발표 시즌을 계기로 이러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해외법인 출자금과 같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은 4분기부터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하락폭이 일정 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 등의 보통주자본 증가 요인이 이를 상쇄하면서 CET 1 비율 하락 폭이 아주 커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말 배당 지급에 따른 추가 하락 요인도 위험가중치 높은 자산의 축소 등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노력으로 인해 상쇄될 것”이라며 “밸류업 공시대로 은행들의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은 올해에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올해 은행주 주가가 코스피 지수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현 은행주 밸류에이션은 원·달러 환율 상승, 규제 리스크 등 여러 우려들이 반영된 수준”이라며 “KB금융뿐만 아니라 지방은행들까지도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원리원칙에 입각한 주주환원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에도 주주환원을 우상향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국내증시 ‘훈풍’ 불까… 빚투·MMF 늘었다

신용거래잔고, 한 달만에 6.14% ↑  
MMF, 200兆 근접… 기대감 반증

새해 국내 증시 ‘훈풍’을 기대하는 투심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도 늘고 있어 증시 대기자금도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16조3851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3일(15조2493억원)보다 935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만에 약 6.14% 증가한 규모다.

신용거래잔고란 투자자가 증권사로 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 주식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빌린 후,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 상승을 기대하며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금을 확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14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57억원, 2954억원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2964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연초 국내 증시는 지난해 말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주요 지수들과 비교해도 코스피의 회복세는 두드러졌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4.68% 증가한 반면, S&P 500은 0.13%, 다우존스30은 0.59%, 나스닥은 0.028%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 코스피가 상승한 것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높아지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며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매력과 밸류업 정책 등에 관심이 늘면서 상반기에는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머니마켓펀드(MMF)도 200

조원에 근접하며 규모를 키우고 있다. 대개 ‘빚투’가 늘어나면 MMF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 효과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현금자금이 늘어나는 추세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신용거래용자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올해 들어 한국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또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의 방증이다”라며 “MMF까지 많아지는 이유는 여전히 증시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도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정 수석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MMF를 늘려나가는 이유는 12월 결산을 하는 법인들이 3월 주주총회를 준비하며 현금 확보를 해두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업이 MMF에 자금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낮은 예금 금리를 피해 MMF를 활용한 것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테슬라 ‘변동성 주의’, 양자컴퓨터株 ‘폭락’

###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10년 만에 역성장… 6.08% ↓  
리제티컴퓨팅, 아이온큐 ‘주가 쇼크’

새해 들어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테슬라와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지만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미 무덤’이 우려되고 있다. 테슬라는 실적 부진 여파로 주가 등락을 반복했으며, 아이온큐·리제티컴퓨팅 등은 양자컴퓨터와 관련된 부정적 전망이 제시되면서 주가가 약 40%대 급락했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월 7일~13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로 7억 685만달러(1조342억원)를 사들였다.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테슬라를 집중 매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뤄졌던 11월 5일(현지시간) 이후 이달 13일까지 주가가 66.08% 폭등했다.

다만, 지난 2일(현지시간)에는 시장에 상치를 밀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6.08% 급락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178만 9000대로 2023년 180만 9000대 대비 1% 감소하며 10년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서학개미들의 최대 종목인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이 주의되는 가운데, 또다른 선호 종목인 양자컴퓨터 관련주는 ‘주가 쇼크’를 보였다. 서학개미들은 최근 들어 지난 7일까지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인 리제티컴퓨팅과 아이온큐를 집중 매수했다.

하지만 지난 7일(현지시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양자컴퓨터에 대해 “양자컴퓨터 기업과 협업하고 있지만 유용한 수준까지는 30년이 걸릴 것이고, 15년 뒤에야 초기 단계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지난 8일 리제티컴퓨팅은 45.41% 떨어졌으며, 8일부터 13일까지는 68.99% 급락했다. 아이온큐 역시 8일에만 39% 추락했으며, 다음날 6.88% 반등하기는 했지만 8일부터 현재까지 43.81% 내려앉았다. /신하은 기자

### 〈코스닥시장 공시유형별 공시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수시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자율공시	계	1사당 평균
2023년	19,242	1,018	103	1,986	22,349	13.1
2024년	20,851	938	112	1,959	23,860	13.4
증감(률)	+1,609(+8.4)	△80(△7.9)	+9(+8.7)	△27(△1.4)	+1,511(+6.8)	+0.3(+2.3)

\* 상기 공시 건수에는 공시유형별 영문공시 건수를 포함

/한국거래소

## 코스닥 ‘불성실 공시’, 전년보다 51% 급증

거래소 ‘코스피·코스닥 공시실적’

지난해 코스닥기업들의 불성실 공시가 113건으로 전년보다 50% 이상 늘었다.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관련 내용이 집중 발생해 투자자들의 주의와 함께 당국의 대처가 특히 필요해 보인다.

1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 유가증권시장·코스닥 공시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1개사당 평균 공시건수는 약 29.8건으로, 전년 대비 4.1건 늘었다. 특히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이 실시되면서 영문공시 건수가 전년 대비 58.2% 늘어났으며, 제출 법 인수도 41.7% 증가했다. 이외에도 수시 공시는 1만 7046건으로 2023년보다 11.3%(1724건), 자율공시는 지난해 1621건으로 16.5% 증가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도 34건으로 전년 대

비 소폭(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불이행(-1건) 및 공시반복(-1건)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공시 변경은 2건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113건(95개사)으로 전년 75건 대비 38건(36개사) 늘었다.

코스닥시장 전체 공시 건수는 2만 3860건으로, 2023년 대비 6.8% 늘었다. 수시공시 중 1609건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불성실공시 내용은 자금조달 관련으로 약 28%를 차지했다. 2023년 23건에 불과했던 자금조달 관련 불성실공시는 2024년에 51건으로 121.7% 급증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도 7건에서 23건으로 늘었다.

특히 관리종목 및 투자환기 지정종목 등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불성실공시가 많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61건에 달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LS증권-한국ST거래, 소상공인 지원 ‘맞손’

토근증권 발행 혁신금융 업무협약

LS증권은 한국ST거래와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토근증권 발행(STO) 혁신금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ST거래는 토근증권 장외거래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LS증권과 한국ST거래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토근증권을 활용한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백년가게 매출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토근증권 발행과 유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고유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증을 받은 점포를 뜻한다.

오승진 LS증권 리테일사업부 대표는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 산업장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로… 위기시 4단계 경보 발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의결 석유·가스공 ‘자원비축 의무기관’ 기본계획·시행계획 5년마다 수립



경북 포항 앞바다 심해에 매장된 약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취하기 위해 웨스트 카펠라호가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평소 핵심자원 비축의 무기관으로 지정되고, 자원안보 위기 발생시 4단계 경보가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2월 6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안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자원안보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또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

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산업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 범위를 구체화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은 평소 비축의무기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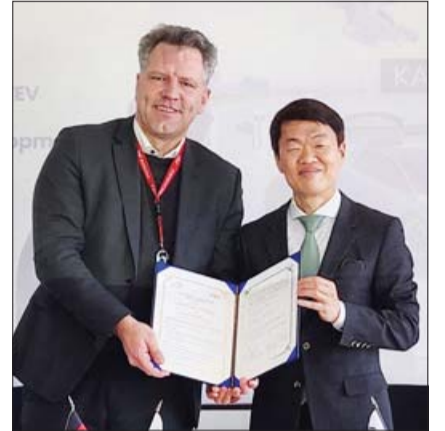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 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은 별도 고시한다.

또 우리나라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 또 해외개발 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오른쪽)과 크리스토프 멘네 FEV 수바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독일 아헨 FEV그룹 본사에서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자연

## 한국자동차연구원 독일 FEV그룹과 맞손 수소 모빌리티 기술개발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이 독일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업 FEV 그룹(사장 패트릭 휴페리치)과 손잡고 친환경 경수소 모빌리티 혁신 기술개발에 나선다.

한자연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나승식 원장과 크리스토프 멘네 FEV 부사장이 독일 아헨에 위치한 EFV 본사에서 ‘수소엔진 시스템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FEV는 1978년 설립한 글로벌 자동차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독일 아헨 본사를 비롯해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다.

특히 저배출·저소비 엔진 및 시스템 개발과 에너지 기술의 설계·개발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 기술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안전기준 부적합’ 86개 해외직구 제품 적발·반입 차단

환경부, 올해 안전성 조사 예산 확대 대상제품 1148개→3300개로 늘려

정부가 해외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직구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590개 제품은 ▲방향

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 등 86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됐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미용접착제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36ppm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접착제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1263ppm 검출됐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하는 반지에서는 카

드뎀이 국내 기준치보다 800배가 넘는 82.8%였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는 납의 함량 기준이 0.009% 미만인데 2.866% 검출됐다.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에 등록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해외 유통사에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들 86개 제품이 실제로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됐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도 요청했다. 특

히, 올해에는 안전성 조사 예산을 확대해 조사 대상 제품을 기존 1148개에서 3300개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생활화학제품 2000개, 금속장신구 1200개, 석면함유 우려 제품 100개가 포함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코트라 ‘수출투자 비상대책반’ 가동

수출상담회 등 상반기 조기 추진 美 트럼프 2기 출범 대비 TF구성



강경성 코트라 사장이 14일 ‘수출투자 비상대책반’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최근 대내외 복합위기 속 불확실성 확대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본격 가동하고, 수출투자 총력 지원사격에 나선다.

코트라는 14일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은 강경성 코트라 사장이 직접 반장을 맡아 수출투자 확대를 위한 전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 애로 ▲사업집행-예산 ▲통상환경 대응 ▲공급망 모니터링 등 수출투자 확대와 기업 애로해소와 관련이 높은 4개 분과로 구성, 정기회의를 통해 분과별 현안을 점검하고 긴급현안 발생시 수시 협의를 진행한다.

먼저, 현장 애로해소를 위해 대내외

역량을 결집한다. 본사 부서와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 12개 지방지원본부 등 국내외 모든 접점에서 수출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또 연내 성과창출을 위해 국내외 수출상담회와 해외전시회 참가 등 주요 사업을 상반기 조기 추진하고, 수출바우처 등 필요 예산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검역본부,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선제 대응

환경변화 대응 연구개발 비전 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4일 ‘제3차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대응과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연구개발 비전을 제시했다.

검역본부는 ‘신뢰받는 동식물 질병 연구로 세계적 연구기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동물질병 예방 및 제어기술 고도화 ▲개방형 연구 생태계 구축 ▲미래 환경 변화 대응체계 확립이라는 3대 전략을 내세웠다. 이를 중심으로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선제적 대비 및 대응기술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을 통해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고위험 식물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연구를 강화한다. 또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구

현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역학분석 모델 개발을 비롯해 동물복지 및 수의법의학 연구, 그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진단·치료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민간 연구개발(R&D)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안전 연구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농림축산검역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소 보툴리눔 백신을 개발해 해외 시장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 RNA 간섭(RNAi)을 이용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유전자 치료제를 보급하는 등 국내 농·축산업 보호와 발전에 기여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올해 2만4000명 채용

올해 공기업을 비롯한 전체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2만4000명으로 정해졌다. 국내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대비 20개 감소했으나 정부가 신입직원 선발 규모는 작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청년층의 고용부진을 감안한 방침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측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의 ‘2025 공공기관 채용 정보박람회’가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김윤상 기재부 제2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주요 지표상으로 양호한 모습에도,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공공기관들이 올해 약 2만4000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목표(2만4000명)와 같은 수치이지만 지정 공공기관 수가 347개에서 327개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여러 공공기관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씬씬이와 군살을 줄이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해 핵심업무의 채용역량을 늘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서울시, 위기상인 발굴하고 선제지원… 골목상권 살린다

## 공동체 육성 등 조례제정 추진

소상공인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개별 영세상인 상권활동 참여  
선순환 구조로 지속성장 도모”  
전통시장 ‘롱런 프로그램’ 가동

서울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전통시장 롱런(Long-Learn)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선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은 흩어진 상권 내 소상공인을 구획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제도 기반을 갖추기 위해 추진된다.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정책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상권 중심점 역할을 하는 상인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내 전통시장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메트로DB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상권 면적·밀집도·점포 수를 감안해 연차별 수요를 예측하고 공동체 대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아울러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골목상권 지원 조례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 모니터링 고도화, 정책 효과 분석, 위기 상권 발굴, 선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내수 부진에 따른 골목상권 침체로 인해 영세상인 대출 부실·연체 및 폐업 증가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골목

상권 영세상인은 전통시장과 달리 지원 근거가 미비해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상권 활성화 정책에서 소외돼 생존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시는 골목상권 구획화로 정책 편입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구획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지원, 온누리상품권을 적용하고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행·재정적 서포트로 영세상인의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원 대상은 영세상인 25~30명 이상, 상인 단체가 없는 골목상권으로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시는 “개별 영세상인이 상권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스스로를 돕는 자조적인 골목상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골목형상점가 등록 지원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기여하고 개별 점포 매출 상승을 견인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고 영세상

인의 생존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을 위한 롱런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는 서울시 전통시장을 유형별로 분류해 각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린 생활형 시장의 경우 지역 주민 밀착형 상인 역량 강화를 돕고, 관광형 시장은 고유의 강점을 드러내는 브랜딩·마케팅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구성해 상인과 고객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우수 시장 인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과 성장 기반으로 자생력을 높이는 서울형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을 구현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유형별 고유의 강점을 살려 지역 소비자와 관광객이 찾고 싶은 활력 있는 상권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학년 올라갈수록 ‘문해력’ 격차 확대

서울시교육청, 문해력·수리력 검사  
초4, 문해력 미달 3%→고1, 7% 확대  
수리력 미달은 4%→13% 크게 늘어

학생들의 문해력 격차가 학년을 거듭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력 ‘기초 미달’ 수준 진단을 받은 학생과 ‘우수 수준’을 받은 학생 비율이 모두 학년이 오를수록 커지고, ‘기초 수준’과 ‘보통 수준’ 학생 비율은 낮아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진단검사는 학생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는 검사 도구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 초·중·고교 524곳 9만 4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당 학년 전체 학생 수 대비 약 35% 규모다.

검사 결과 문해력 평균 척도점수는 초4(1452.77점)에서 고1(1736.18점), 수리력은 같은 학년 기준 1433.33점에서 1629.89점으로 올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해력과 수리력은 꾸준히 향상

됐다.

그러나 학생들의 문해력 격차는 학년이 오를수록 심화했다. ‘기초 문해력 미도달’을 뜻하는 1수준 비율은 초4(3.42%)에서 초6(4.26%), 중2(5.92%), 고1(7.02%)로 2배 이상 커졌고, ‘우수한 수준’의 문해력을 뜻하는 4수준 비율도 초4(30.16%)에서 초6(43.84%), 중2(47.10%), 고1(52.13%)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2수준 비율은 초4(17.83)에서 초6(12.70), 중2(15.01), 고1(12.98)으로, 3수준은 초4(48.58), 초6(39.20), 중2(31.97), 고1(27.86)로 비율이 모두 낮아졌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들의 문해력이 좋아지긴 하지만, 같은 학년 안에서 학생 간 차이가 점점 벌어진 셈이다.

수리력의 경우, 4수준 학생 비율이 초4(43.8%)에서, 초6(45.92%), 중2(43.3%), 고1(34.19%)로 집계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우수한 수준’의 수리력을 가진 학생 비율이 떨어졌다.

기초 수리력 미도달 의미의 1수준은

초4(4.12%)에서 초6(5.59%)에서 중2(12.42%), 고1(13.68%)로 점차 증가해 중학교 진학 이후 이른바 ‘수포자’가 크게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진단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문해력·수리력 신장을 위한 장학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컴퓨터 기반 검사(CBT)로 전환해 700교, 약 12만명(대상 학생의 약 50%)의 학생들이 진단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가 서울 학생들의 역량 교육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컴퓨터 기반 검사(CBT)를 구축해 학생 이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확한 진단과 원인 분석을 통해 학생 역량 진단검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초4부터 고1까지의 문해력·수리력 신장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 서울시, 집 앞 5분거리 녹지 500곳 조성

작년 매력·동행가든 536곳 만들어  
내년까지 정원 총 1007곳 계획 발표

서울시는 올해 매력·동행가든을 500곳 이상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작년 3월 시민 누구나 집 앞 5분 거리에서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정원 1007개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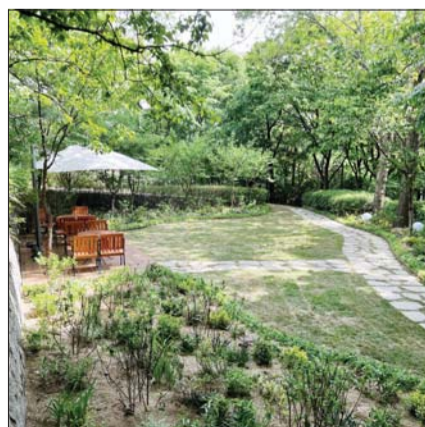
시가 지난해 설치한 매력·동행가든은 총 536개소(42만㎡)이다.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였던 독섬

한강공원이 있는 광진구에 가장 많은 정원(110개소)이 조성됐다. 이어 성동구(40개소), 마포구(28개소)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노원구(4만8236㎡), 관악구(3만9467㎡), 강서구(3만8917㎡), 광진구(3만1784㎡) 순이었다.

시는 매력·동행가든 조성을 통해 서울시내에 교육 1만335주, 관목 65만 8714주, 초화류 271만4863본이 식재됐다고 덧붙였다.

매력·동행가든의 위치와 규모, 정원



개운산 동행정원 전경. /서울시

에 담긴 이야기 등 상세 정보는 ‘정원 도시 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드려요”

21일 신청… 파주페이로 10만원 지급

파주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들에게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받는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이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되며, 신청 당일부터 익일 오후에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다. 신청 첫 주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4부제가 적용된다.

파주페이카드가 있는 시민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파주페이카드가 없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신청 후 카드

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09시~22시까지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09시~18시까지 받는다.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성인의 경우 동거인 제외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 세대 내에서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취약계층 창호·조명 고효율제품 교체 지원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 사업’

서울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후 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새빛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제외된다.

단열 창호와 고효율 LED 조명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500만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은 3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과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바꾸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를 정하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는 올 3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총 8차례 개최된다. 지원 희망자는 보조금 심의 전달 말일(근무일 기준)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망자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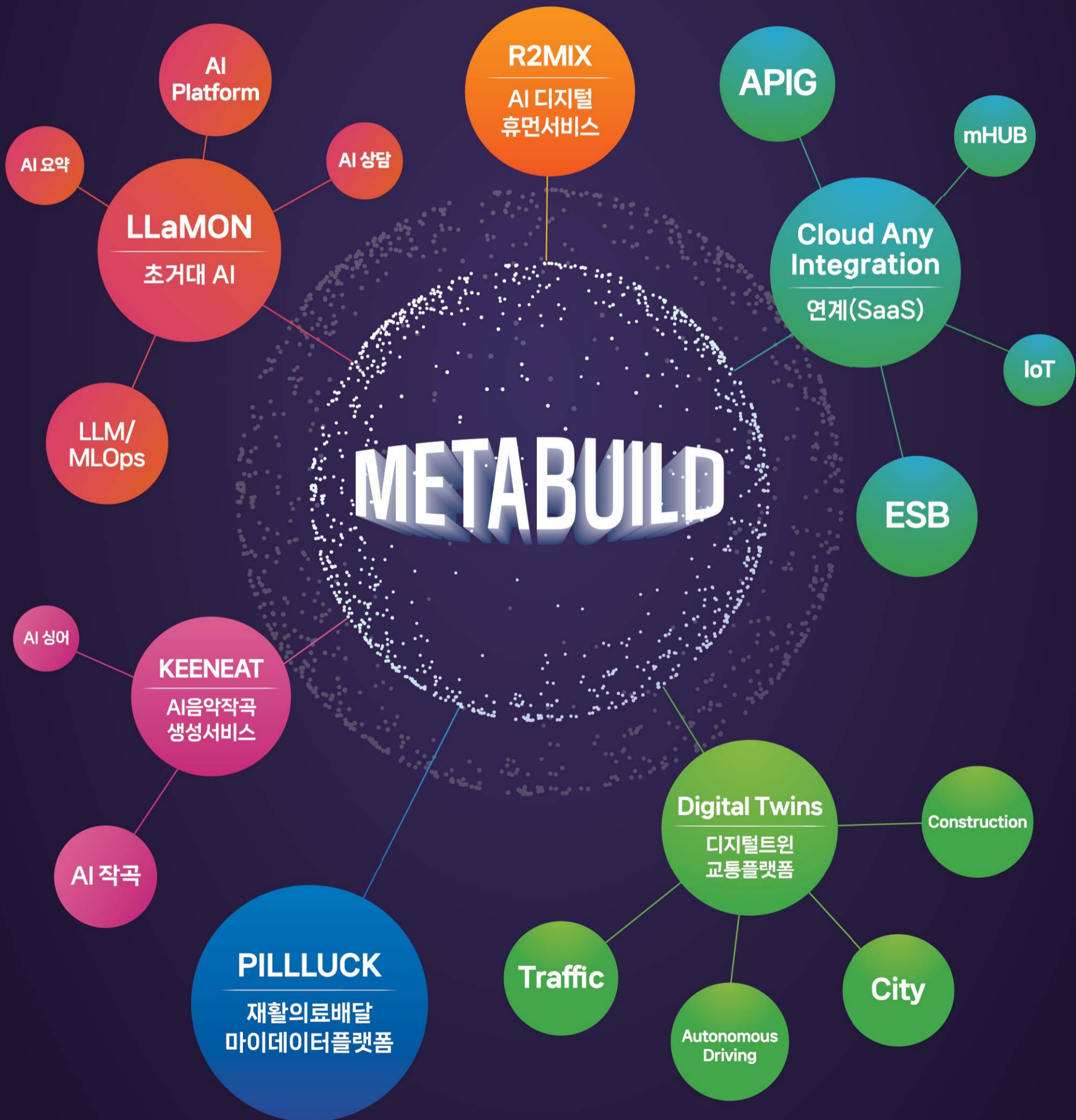




AI · Cloud · 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 AI LLaMON Platforms

연계통합 미들웨어 ·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 경북도-경북문화재단, 12개 지역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 선정 국비 10억 확보... 전국 시도 최고액 인문학 콘서트, 창작 연극 등 예정



코레일 김천(구미)역에서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이 문화관광체육부의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3000만원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과 혁신도시가 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해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국비 10억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경북문화재단은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올해의 사업을 ‘경북 온(On)마을 열차 12호’로 정하고 열차 한 칸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연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등을 담아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은 ▲한글문화만물상(고령군, 청도군) ▲구석구석 공연배달극장 ‘소풍’(봉화군, 영양군) ▲구석구석 별을 위한 페스티벌(안동시) ▲어

화동동 공연봄날, 예술이 淸淸(영덕군, 울릉군) ▲원도심 아트 데이(영천시) ▲문화바람, 오예! 2.0(예천군) ▲예술보부상, 바지개 메고 울진을 누비다(울진군) ▲‘너를 이런 거 본 적 있나?’(의성군) ▲산소 카페 나들이 ‘청송 오감만족’ (청송군) 등이다.

고령·청도의 ‘한글문화만물상’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 이야기와 청도읍성과 반시 등을 주제로 한글을

활용한 독창적인 인문학 콘서트를 제공한다.

봉화·영양의 ‘구석구석 공연배달극장 소풍’은 창작 연극으로 공생과 상생의 정신을 전해 인구소멸 지역의 공동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안동 ‘구석구석 별을 위한 페스티벌’은 지역 예술가를 활용한 국악, 트롯, 마술, 마당극 공연 등을 제공한다.

영덕·울릉 ‘어화동동 공연 봄날, 예술이 淸淸’은 지역 공동체 안녕을 비는 덕담을 나누는 마당놀이와 체험 행사다.

이들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주간 총 96회 운영되며 이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제공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올해도 많은 국비 확보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마련돼 수준 높은 공연으로 경북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무안군 지역금융 활성화 기여 인정받아

전남 무안군은 2024년도 지역금융 활성화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금융 활성화 부문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 결과, 무안군이 무안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 등을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되었다.

무안군은 지난해 ▲무안사랑상품권 발행·운영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관광지 입장료 화폐드림 추진 등 무안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섰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영양군 공공 겨울축제, 인파로 ‘복적’

영양군(군수 오도창) 영양읍 현리 일원에서 영양군과 영양군 체육회 공동 주최로 19일까지 열리는 ‘제2회 영양 공공 겨울축제’장은 추운 날씨에도 인파로 복적이고 있다.

현리 빙상장은 매일 25cm 이상의 얼음 두께를 유지해 안전하게 ‘공공 겨울축제’를 진행할 수 있었다.

작년 ‘제1회 영양 공공 겨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영양군에서는 올해 2회 축제를 개최하며 기존 3m였던 눈썰매장의 높이를 6m로 높였고, 빙상장의 규모를 넓히고, 다양한 먹을거리를 추가하는 등의 노력으로 작년 1회 축제를 가볍게 뛰어넘는 호평을 받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산청군 농업과학기술보급에 69억 투입

산청군이 농업과학기술보급 시범사업에 69억원을 투입한다.

산청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과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지역 농민들에게 확대·보급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6개 분야 46개 사업을 선정해 69억원을 투입한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이 농가 신기술 보급과 함께 노동력 및 농업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 사천시 사천방문의 해, 관광객 맞이 분주

경남 사천시가 2025년 사천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맞이 준비에 바차를 하고 있다.

14일 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적인 컨셉의 BI ‘2025 사천방문의 해 사천에 또와’를 최근에 개발했다.

또한 사천방문의 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천시의 진입관문인 사천IC 초입 부근 공원에 관광 캐릭터 포이를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 해수부-해진공, 1兆 규모 펀드 조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본격화

국내 항만에 연료 저장 시설 구축 벙커링 전용 선박 신조 금융 지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14일 오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및 1호 펀드 투자 서명식을 개최했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20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인프라 펀드는 국내 항만에 친환경 연료 저장 시설을 구축하고 벙커링 전용 선박을 신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2030년까지 약 6000억원을 투입해 ▲LNG ▲메탄올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는 항만 저장 시설을 조성하고, 약 4000억원을 투자해 LNG·암모니아 벙커링 전용 선박 4척을 신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적 선박의 친환경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원활한 연료 공급을 통해 우리 항만이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서 경쟁력을 지속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교보생명 ▲우리자산운용 ▲현대오일터미널 등 펀드 참여 관계자가 참석하며 1호 펀드 설립을 위한 ‘투자 기본 계약 체결 합의서’와 ‘대출 약정 체결 합의서’에 서명했다.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울산 현대 액체 화물 터미널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 2400억원 규모로, 이 중 1300억원이 인프라 펀드를 통해 투자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 선박의 메탄올 연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호 프로젝트로 예정된 ‘여수 규모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을 통해 LNG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후속 프로젝트를 발굴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주시, (주)미정 식품 제조공장 투자유치

총 200억 투입... 50명 일자리 창출

경주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지역의 유명 식품제조업체인 (주)미정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정재현 (주)미정 대표이사, 정기율 회장, 고영달 경주시 경제산업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경주시와 (주)미정은 천북면 신당리 일대에 식품제조공장을 신설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주)미정은 올해 말까지 1만 9154㎡ 부지에 조미식품(소스류), 떡류, 면류 등을 생산하는 첨단 식품 제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주)미정은 총 200억 원이 투입해 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는 투자 사업의 원활한 진행



주낙영 경주시장, 정재현(사진 우측) (주)미정 대표이사, 정기율(사진 중앙) 회장이 13일 경주시청 내 대외협력실에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을 위해 공장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1963년 설립된 (주)미정은 면, 떡, 소스 등 다양한 식품을 제조하며 성장해 온 기업으로 뛰어난 연구개발 역량과 전문 생산 능력을 갖췄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 대구시, 中企 경영안정자금 1.2兆 지원

전환자금 신설,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오는 17일부터 각 지점서 신청 접수

대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출금액과 우대 여부에 따라 대출이자 일부(1.0%~2.2%)를 1년간 시비로 보전하는 것이다.

융자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1조 2000억 원으로,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자금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 포항시, 한 달간 숙박 할인 프로모션 진행

여가플랫폼 야놀자와 ‘맞손’

포항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과 올 초 개통한 동해선 이용 포항방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내 대표 여가플랫폼 야놀자와 손잡고 특별이벤트로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한 달간 진행한다.

15일부터 여가플랫폼(야놀자) 어플에서 포항 숙박업소 3만 원 이상 상품을 예약하는 고객에게는 1만 원 할

인 쿠폰이, 5만 원 이상 상품을 예약하는 고객에게는 2만 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은 준비 수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2월 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포항 관광 할인 이벤트는 국내 메이저 여행 커뮤니티 미디어인 ‘여행에 미치다’와도 협력해 홍보될 예정이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 “라면부터 초콜릿까지... 엄·빠 어릴적 간식 돌아온다”

〈엄마·아빠〉

**농심 창립 60주년 기념 ‘농심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광고 인기**  
**서울우유 ‘미노스 바나나우유’ 소비자 요청... 12년만에 재출시**  
**오리온 ‘비틀즈’ 재출시 예정**  
**롯데웰푸드 ‘가나 초콜릿’ 출시 50주년 기념 한정판 패키지**



농심라면.

/농심



가나 50주년 기념 패키지

/롯데웰푸드



최근 식품업계에 레트로 열풍이 불고 있다. 1970~1980년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농심라면’부터 클래식한 ‘미노스 바나나우유’까지 단종된 제품들이 재출시되고 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로움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과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인기 제품들을 리뉴얼해 선보임으로써 판매량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농심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 캠페인 인기를 끌었던 ‘농심라면’을 재출시했다. 1975년 출시됐던 농심라면은 소비자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남아있는 제품으로, 특히 1978년 기업 사명(社名)을 농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출시한 농심라면은 농심 R&

D가 보유하고 있던 1975년 출시 당시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맛과 품질에서 최근 소비자 입맛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 재료인 소고기와 쌀을 국내산으로 사용해 품질을 높였으며, 고추가루, 액젓으로 만든 양념스프를 더해 칼칼한 감칠맛을 더했다.

패키지는 지난 1975년 출시 당시 디자인을 계승했다. 과거 농심라면을 기억하는 세대에겐 추억을 선물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북고풍의 새로움을 더한다.

농심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농심라면 외 상반기 중 2개 제품을 재출시할 예정이다.

서울우유는 ‘미노스 바나나우유’를 12년만에 재출시했다. 1993년 첫 선을

보인 미노스 바나나우유는 2012년 단종된 후에도 소비자들의 재출시 요청이 꾸준히 이어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추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뉴트로 트렌드와 단종 제품의 재출시를 원하는 ‘보이스머(목소리(voice)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제품이나 회사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비자)’의 요청을 반영해 미노스 바나나우유의 재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해 8월 ‘포카칩 스위트즈맛’을 8년만에 재출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22년 봄 한정판으로 출시해 판매한 ‘딸기송이’를 3년만에 다시 내놨다. 두 제품 모두 판매 중단 이후 오리온

고객센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재출시 문의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리온은 추잉캔디 ‘비틀즈’도 올해 1분기 재출시할 예정이다. 비틀즈는 1990년 출시돼 2000년대까지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는 제품을 재출시하면 신제품 연구 개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어느 정도 판매량도 기대할 수 있다”며 “중장년층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MZ세대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 당분간 재출시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종된 제품은 아니지만 패키

지 디자인을 과거와 동일하게 해 추억을 되살린 사례도 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말 ‘가나 초콜릿’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1975년 출시 당시의 디자인, 1987년~2002년 당시의 디자인을 각각 적용한 한정판 제품을 출시했다.

하이트진로도 맥주 ‘하이트’ 출시 32년을 맞아 지난해 하이트의 병과 캔, 페트 전 제품 디자인을 새단장했다. 1993년 출시 당시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하이트 영문 글귀(HITE)를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변경하고, 글씨체, 색상, 크기도 바꿔 로고를 더욱 눈에 띄게 강조했다. 또한, 엑스트라 콜드 공법을 적용해 맥주 본연의 맛을 살린 시원함을 시각화하기 위해 아이스포인트 심볼도 변경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를 둘러싼 정치적 불안정성도 레트로 마케팅이 유효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소비자들은 과거를 추억하며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마케팅이 인기를 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미노스 바나나우유

/서울우유

## 현대이지웰, 정육·청과 등 ‘설 선물 특별전’

총 6000여종 15만여개 세트 할인  
 이지웰 복지몰 등 3곳서 동시진행



현대이지웰 설 맞이 선물대전 관련 이미지.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의 토털 복지솔루션 기업 현대이지웰이 이달 21일까지 ‘2025년 설 선물 특별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현대이지웰은 행사 기간 동안 정육, 청과, 건강식품, 생활가전 등 총 6000여종 15만여개의 설 선물세트를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복지 포인트 온라인몰 ‘이지웰 복지몰’, 전통시장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온누리전통시장몰’, 모바일 식권 기업 현대벤디스의 ‘복지대장몰’에서 동시 진행된다.

특히 현대이지웰은 실속형 선물세트

를 선보인다. 이달 19일까지 등심, 갈비살 등 한우 구이용 부위로 구성된 ‘이지웰 예담우 1++ 한우구이 선물세트’를 할인가에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등심·갈비살·부챗살·특수부위 각 300g씩 구성된 실속형 선물세트, 등심·갈비살·부챗살·살치살 각 300g씩으로 구성된 스탠다드형 선물세트가 있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별 대표 제품으로 구성된 500여종의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주요 품목으로는 현대백화점의 ‘현대특선 한우갈비 매(梅) 세트’, 현대바이오랜드의 ‘솔가 멀티비타민 선물세트’, 지누스의 ‘클라우드에어 메모리폼 매트리스’ 등이 있다.

전통시장 대표 먹거리 선물세트도 준비됐다. 이달 21일까지 온누리전통시장몰에서는 설맞이 선물대전을 통해 전국 각 지역의 전통시장 먹거리 선물세트 600여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전남 굴비 고향광시장의 ‘영광 굴비 범성포 명품 선물세트 10미’, 경북 상주중앙시장의 ‘상주삼백곶감 꽃감선물세트’ 등이 포함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롯데마트, 연어 30% 할인 3000원대 선보여

행사카드 결제시 광어회 40%↓

롯데마트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우려에 대비해 연초 수산물 물가 안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노르웨이산 ‘내가 만드는 연어’ 횡감용과 ‘내가 만드는 연어’ 구이용을 엘포인트 회원 대상 30% 할인가인 3990원, 3710원에 각각 선보인다.

롯데마트는 이번 3000원대 연어 행사를 위해 환율 급등 이전인 지난해 11월

사전 계약을 통해 약 50톤의 연어 원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 직송으로 들어온 연어 원물을 중간 유통사 없이 각 점포에 직배송해 물류비를 절감했다.

광어회도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됐다. 롯데마트는 ‘광어회(350g)’를 엘포인트 회원이 행사 카드로 결제할 경우 약 40% 할인된 2만7840원에 제공하는다. 해당 광어회 역시 제주 광어양식장에서 생산된 약 50톤의 원물을 사전 계약해 준비했다는 게 롯데마트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 롯데웰푸드 ‘제로’ 누적매출 1000억 돌파

건과·빙과·유가공 등 19개 제품 운영  
 브랜드 론칭 후 2년6개월 만의 성과

롯데웰푸드의 무설탕·무당류 브랜드 ‘제로(ZERO)’가 누적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22년 5월 브랜드 론칭 이후 매년 목표 매출액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며 2년 6개월 만에 독보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췄다.

제로는 건강에 걱정되거나 부담되는 요소를 줄여 소비자에게 먹는 즐거움과 건강한 삶을 제공한다는 비전 아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현재 건과, 빙과, 유가공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총 19개 제품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선택지를 넓히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제로는 론칭 당시 음료 시장

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무설탕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식품으로 옮겨왔다. 출시 초기부터 소비자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큰 인기를 끌었으며, 론칭 직후 2022년 하반기에만 16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후 매년 지속 성장해 2024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출시 첫해 대비 약 214% 신장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신제품 ‘제로 초코파이’는 출시 50일 만에 600만봉(50만갑)이 판매되며 그 인기를 증명했다. 초코파이는 출시 전 시행한 자체 소비자조사에서 2년 연속 제로 콘셉트 희망 제품 1위를 차지했으며, 롯데웰푸드는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2년여 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무설탕 마시멜로와 초콜릿이 들어간 제로 초코파이를 만들어냈다. /신원선 기자

## 쿠팡, 최대 50% 할인 ‘빅시즌 설 프로모션’

20일까지 ‘설 특집 라이브쇼’ 코너

쿠팡이 이달 29일까지 ‘빅시즌 2025 설 프로모션’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명절 관련 모든 카테고리 상품의 상품 약 2만 종을 한데 모아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2025 설 한정 특가 ▲선물·장보기·연휴 즐기기 추천관 ▲윈데이 특가 ▲설 특집 쿠팡 라이브쇼 ▲브랜드데이 등의 코너로 구성됐다.

특히,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는 ‘설 특집 쿠팡 라이브쇼’를 코너를 진행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으로 제스파, LG생활건강, 셀렉스 등 브랜드 상품을 선보인다.

라이브 방송 전용 혜택도 마련됐다. 방송 중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정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구매 인증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 이달 17일에는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폴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V3’ 라이브를 진행한다. 20일 저녁 7시에는 ‘동원 참치 0-12호+쇼팡백 선물세트’ 라이브를 1시간 동안 진행한다. /안재선 기자

## 삼립 ‘삼립호빵’ 캐나다 수출 확대

삼립이 ‘삼립호빵’ 캐나다 수출을 확대한다. 삼립은 캐나다 최대 유통 그룹인 로블로(Loblaws)가 운영하는 마트 ‘티앤티(T&T)’에 삼립호빵을 입점시켰다. 삼립호빵은 3월부터 캐나다 전역에 위치한 티앤티 40개 전 매장에서 판매된다. 티앤티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시아 식품 체인 마트다. 최근 K푸드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캐나다 현지인들의 방문이 크게 늘고 있다. 삼립은 캐나다에서 단팥·고구마·앙버터 호빵 3종류를 판매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 수주 잦아·신약 상업화... 제약·바이오, 올해도 훈풍 분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유럽 소재 제약사와 2.7兆 계약  
생산능력, 플랫폼 개발 등 박차

## 유한양행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

국내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 확장, 신약 기술수출 등으로 K제약·바이오 산업에 불어오기 시작한 훈풍이 해가 바뀌어도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5년 첫 수주 성과로 유럽 소재 제약사와 초대형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2조747억원이고 계약 기간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계약 체결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창립 이래 역대 최대 수주 기록을 세우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24년 누적한 연간 수주 금액과 비교

하면, 이 계약은 지난해 총 수주액 5조 4035억원의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건수별로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1조원 규모의 '빅딜'을 세 건 성사시켜 기업 입지를 확대했다. 지난 2024년 7월에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조4600억원 규모의 계약을, 같은해 10월과 11월 각각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7000억원 계약, 유럽 소재 제약사와 9304억원 계약 등을 맺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 측면에서 전년 대비 약 1.5배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수주 경쟁력을 강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에는 창립 후 처음으로 연간 누적 수주 3조원을 달성했고, 2024년에는 5조원을 돌파하는 등 K-위탁개발생산(CDMO)사업을 견인해 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도 압도적 생산능력 확보, 신규 플랫폼 개발, 품질 경영 등을 성장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부터 지난해 말 인천 송도에 완공한 ADC의약품 전용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한다.

해당 생산시설은 4층 구조로 설계됐고, 500l 접합 반응기 및 정제 1개 라인 등을 갖췄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4월 5공장 완공도 앞두고 있다. 5공장은 기존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L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국내 대표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은 '렉라자' 성과를 이어가며 K신약 상업화가치를 높인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와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미국과 유럽에 이은 세 번째 허가인 데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이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앞서 지난 2024년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한 후 같은 해 12월 유럽에서도 최종 품목허가 승인을 확보해 유럽 진출 길을 열었다. 또 해당 요법은 현재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핵심 국가에서도 품목허가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처럼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억제제인 엑손19 결실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로 쓰이게 된 가운데, 경쟁 약물보다 우수한 약물 유효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렉라자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은 최근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타그리스'보다 전체 생존기간(OS)을 1년 더 유지하게 해 우위에 있다는 '마리포사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빅파마와 견줄 뎀 외형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회의적인 시각으로 볼 이유는 없고 외형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전략적 기술수출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과 협력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본사 전경./유한양행

# “사케 ‘쿠루쿠루’, 전국 홈플러스서 만나요” 라이엇 게임즈 ‘발로란트’, 올해 로드맵 공개

나라셀라 “다양한 음식과 즐길 수 있어”  
사과·백도 품미, 요거트 같은 산미  
2l 팩 구성... 전국 매장서 구매 가능



쿠루쿠루 사케 /나라셀라

나라셀라가 신년을 맞아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는 가성비 사케 ‘쿠루쿠루’를 홈플러스 전점에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쿠루쿠루’ 사케는 맑은 물로 유명한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에서 약 200년간 사케를 만들어온 ‘타카마사무네’가 양조했다. ‘좋은 물과 자연의 은혜, 그리고 정성을 다 한 술이 사람의 마음에 스며든다’는 철학으로 사케를 마시는 모든 사람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맛있다”는 감탄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과 개

성을 담아냈다. 또한, 맑은 물의 정령이라고 불리는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의 캐릭터 ‘쿠루과’를 레이블에 담아 깨끗한 물과 깔끔한 맛을 형상화했다. ‘쿠루쿠루’ 사케는 사과와 백도의 신선하고 달콤한 품미에 요거트를 연상시키는 상쾌한 산미가 특징으로 기분 좋은 감칠맛과 깔끔하고 드라이한 피니쉬

로 모든 음식과 어울리는 최고의 식중주이다. 차갑게 마시면 깔끔한 산미와 드라이한 품미를 느낄 수 있고,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풍부한 단맛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치킨, 족발, 스키 등 다양한 배달음식과 잘 어울린다.

나라셀라 김나연 사케 소믈리에에 따르면 “쿠루쿠루는 다양한 음식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사케”라며, “집에서 휴파티를 즐기거나 가볍게 음식과 함께 마실 술을 찾으신다면, 쿠루쿠루 사케가 적격”이라고 전했다.

‘쿠루쿠루’ 사케는 2l 팩으로 판매되며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신원진 기자 tree6834@

챔피언스 투어 통해 다양한 경험 제공

라이엇 게임즈의 1인칭 전술 슈팅 게임 ‘발로란트’가 지난 11일 2025년 진행할 주요 업데이트에 관한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2025년, 발로란트는 하나의 시즌을 중심으로 여섯 개의 액트를 선보인다. 플레이어는 각 액트별로 ▲경쟁전 ▲신규 배틀패스 ▲프리미어 등을 즐길 수 있다. 새로운 에이전트와 스킨 등 다양한 인게임 콘텐츠를 비롯해 10월까지 진행되는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를 통해 액트 별로 다채로운 게임 플레이와 이스포츠 시청 경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맵 구성은 플레이어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맵 액트마다 변경된다. 플레이어는 맵 액트마다 VC T와 동일한 구성의 맵 로테이션을 즐길

수 있으며, 신규 액트가 시작된 직후 다음 액트에 적용될 로테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요원의 경우 지난 9일 출시한 ‘테호(Tejo)’를 시작으로, 한 해 동안 세 명의 요원을 선보일 예정이다. 콜롬비아 출신의 최후대 테호는 폭발을 일으키는 궁극기 ‘아마겟돈’을 활용해 지역을 장악 중인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등 팀을 위해 전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플렉스’는 2025 시즌부터 추가되는 신규 장식 아이템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휴대용 오브젝트다. 발로란트는 플렉스 출시를 맞아 게임을 즐긴 모든 플레이어에게 무료로 플렉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배틀패스를 통해 추가 플렉스를 획득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한미약품, ‘임성기연구자상’ 3명 수상

신약개발 유지 계승



대상수상자 최형진 교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뇌가 음식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유발하고 식욕은 억제한다는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최 교수는 전공 분야인 내분비대사 체계와 뇌 기초과학을 융합하는 연구에 주력하는 등 독창적 연구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연구자상을 받는 임세진 교수는 ‘이식편대속주병’ 면역치료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임 교수는 동종 이식모델을 활용해 중앙 미세환경에서, 항종양 면역 기능을 하는 CD8 T세포가

전사조절인자 TCF1을 발현하는 전구 세포군과 Tim-3를 발현하는 효과세포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 임 교수는 발현된 Tim-3 단백질이 이식편대속주병 증상을 유발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고, 임 교수의 연구결과는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제 개발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젊은연구자상 수상자 이원화 교수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인 사스-코브-2(SARS-CoV-2)에 감염됐을 때 발현되는 단백질 TOX의 새로운 병리학적 역할을 규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후 폐 섬유화증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제시했다.

‘제4회 임성기연구자상’ 시상식은 오는 3월 초 열리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억원, 젊은연구자상 수상자 2명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5000만원이 전달된다. /이청하 기자

## 아모레퍼시픽, 헤라 ‘센슈얼 누드밤’ 재단장

세라마이드 성분으로 장시간 보습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브랜드 ‘헤라’에서 입술 관리 기능성을 강화한 ‘센슈얼 누드 밤’을 재단장에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센슈얼 누드 밤은 지난 2020년 헤라에서 출시된 브랜드 대표 제품으로, 입술에 자연스러운 생기를 부여하고 여러 번 덧발라도 맑고 투명하게 발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재단장을 통해 해당 제품에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더해졌다. 그 결과, 이번 센슈얼 누드 밤은 30시간 지속되는 보습감과 입술 장벽 강화 기능을 갖췄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헤라 ‘센슈얼 누드 밤’은 8가지 색상으로 선보여지고 있다./아모레퍼시픽

헤라 ‘센슈얼 누드 밤’ 색상은 총 8가지로 구성됐고, 가볍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분홍색 계열의 ‘와일드 플라워’ 색상은 카카오 선물하기 채널에서 단독 출시된다. 이밖에 전국 백화점 헤라 매장, 아모레몰, 카카오 선물하기,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신한은행-강동구, 공공배달앱 활성화 맞손**

신한은행이 서울시 강동구와 공공배달앱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강동구 소재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 전성호 본부장(오른쪽)과 강동구 이수희 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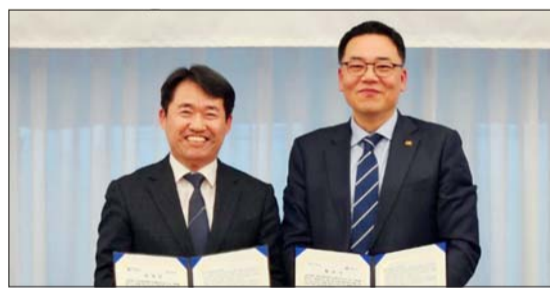
**소진공,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왼쪽부터)소진공 한승재 금융총괄팀장,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 소진공 권대수 부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 울산참사랑의집 감사패 받아**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3일 울산 중구 소재 사옥에서 권명호 사장이 사회복지법인 울산참사랑의집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왼쪽)이 일 김병수 울산참사랑의집 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동서발전



**대상웰라이프-식량과학원, 민관 연구협력 추진**

대상웰라이프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국산 식량자원의 메디푸드 소재화를 위한 민관 연구협력을 위해 13일 대상이노파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웰라이프 서훈교 대표이사(오른쪽)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박도연 원장(왼쪽)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상웰라이프



**남부발전 노사, 'KOSPO 행복나눔 장학금' 전달**

남부발전과 남부발전노조는 지난 13일 부산 본사에서 '2024년 KOSPO 행복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14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 이상대 부사장(왼쪽 다섯번째)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선옥 사무처장(왼쪽 여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부발전

# 신세계스퀘어, 'K-콘텐츠' 명소 부상... 99만명 발길

**신세계계 다양한 영상 콘텐츠 선배 명동 관광특구 일대 활성화 기여**

신세계백화점이 신세계스퀘어 공개 두 달 만에 관람객 수 100만명을 앞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세계스퀘어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관에 설치된 초대형 디지털 미디어 스크린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약 99만 2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명동의 지리적 이점, 대형 스크린이 제공하는 몰입감, 크리스마스와 청동용 등 K-컬처 영상 콘텐츠가 관람객 수 증가에 주효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방탄소년단 뷁과 박효신의 디지털 노래 콘텐츠 더불어 6인조 보이그룹 보이넥스트도어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신세계스퀘어에



신세계스퀘어 스크린 속 '타임리스 모먼트' 관련 이미지 사진 /신세계백화점

서 각각 선보였다.

이 같은 K-팝 콘텐츠는 수많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로 이어졌으며, 공개 당일 많은 국내외 K-팝 팬들이 신세계스퀘어를 방문하며 K-콘텐츠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는 신세계백화점 측 설명이다.

신세계에 따르면, 신세계스퀘어가 선보이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는 명동 관광특구와 신세계백화점

본점 일대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 지난 크리스마스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 이틀간 약 15만 명이 신세계스퀘어를 방문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미리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 고객과 명동을 찾은 국내외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크리스마스 영상을 2회로 나눠 상영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장인화 철강협회장 “탄소중립 기술 확보 주력”

**철강협회 신년 인사회**

4년만에 개최... 200여명 참석

한국철강협회가 2025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철강업 신년 인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한국철강협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2025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를 철강업계·정부·학계·연구계·수요업계 등 철강관련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의 쌀로써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의 경쟁력에 기여하는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거의 노력을 경험삼아 미래 신시장의 수요를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사진)은 “올해도 철강 수요의 위축,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 저탄소경제 체제의 전환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철강산업은 정부와 업계의 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방 수요산업과의 협력 강화와 후방 산업과의 연·원료 조달 효율화를 통해 철강 생태계의 강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을 비롯해 한국철강협회 장인화 회장, 현대제철 서강현 사장, KG스틸 박성희 사장, 세아제강 이휘령 부회장, TCC스틸 조석희 부회장, 한국철강협회 이경호 부회장 등 철강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성운 기자 ysw@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 개최**

우체국쇼핑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새해를 맞아 설 명절 준비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2025 설 선물대전' 개최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BMW미래재단, '교육기부 우수기관' 선정

**교육 기부 통해 사회 이바지**

BMW 코리아 미래재단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4회 연속 선정됐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지속적인 교육 기부를 통해 사회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아 2024년 교육기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

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사회 환원·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과 기관 등을 발굴해 교육 기부 우수기관으로 공식 지정하는 제도다. 수행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며 자격은 3년 동안 유지된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초·중·고생 대상 과학 창의 교육 프로그램인

'주니어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니어 캠퍼스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자동차 속 과학 원리를 활용해 양질의 과학 창의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니어 캠퍼스 외에도 11.5톤 트럭 내부를 실험실로 개조한 '모바일 주니어 캠퍼스'와 화상 플랫폼 기반의 원격 수업 방식으로 확장한 '온라인 주니어 캠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아동에게도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 네이버 해피빈 '굿브랜드 캠페인' 전개

네이버 해피빈이 제품 판매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착한 기업과 함께 '굿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제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는 나눔 에디션을 출시한 기업의 활동을 소개하는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약 18만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에 참여 중인 주요 기업으로는 CJ제일제당의 '나눔햇반', 롯데칠성음료의 '아이시스 8.0 생수', 매일유업의 '소화가 잘되는 우유', 유한킴벌리의 '크리넥스 종이 물티슈' 등이 있다.

모든 굿브랜드 제품은 해피빈 굿액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단독 상품을 구매하면 일정액이 기부된다.

/이혜민 기자 hyem@

## 이병문 숭실대 교수 무역상무학회장 선출

숭실대학교는 이병문 글로벌통상학과 교수(사진)가 한국무역상무학회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이병문 신입회장은 2002년 영국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2년부터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ihj@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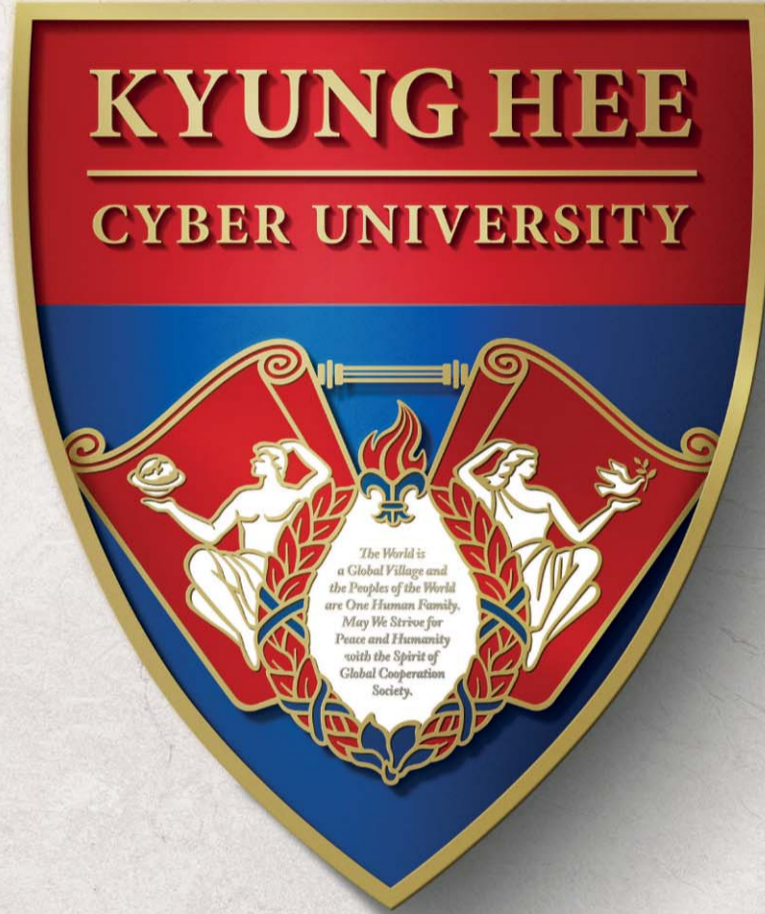
- ◆한국투자증권 ◇신임 현지법인장 ▲ SF크레딧파트너스 안근영
- ◆NH투자증권 ◇신규 선임 ▲홍콩법인장 이윤기
- ◆IBK연금보험 ◇신규 임원 선임 ▲상무(위험관리책임자) 정범식 ▲상무(개인연금본부장) 조동우

**부음**

- ▲김영환씨 별세, 김기석(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정조사과장)씨 부친상=14일, 청주참사랑병원장례식장 목련2, 발인=16일. 043-298-9200.
- ▲박충식(라파엘)씨 별세, 조제(라파엘라)씨 남편상, 박정민(前 SK스토아 대표)·지민·경아씨 부친상=1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발인=16일. 02-2258-5940.
- ▲임수선씨 별세, 이성림(부산시설공단 이사장·전 KNN 사장)씨 모친상, 노춘숙(재송여자중학교 교장)씨 시모상=13일, 부산시민장례식장 MVG, 발인=17일. 051-636-4444.



# 경이로운 변화, 희망찬 미래



<b>교육부가 인정한 최우수 사이버대학교</b> 개교 이래 언제나 교육부 평가 1위(2007, 2013, 2020)	<b>K-BPI 사이버대학 부문 9년 연속 1위</b>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b>4년제 정규 학사 취득을 100% 온라인으로</b> 명문 석학 교수의 100% 온라인 수업 진행
<b>신·편입생 장학금수혜율 98.2%</b>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b>경계 없는 캠퍼스 라이프</b> 축제부터 지역학습관, 현장실습까지	<b>다양한 경희동문 혜택</b> 경희대 캠퍼스 및 도서관 이용, 학점교류, 의료비 감면 등

## 경희사이버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모집 일정**      1차: 2024.12.01.(일) ~ 2025.01.14.(화)      2차: 2025.01.27.(월) ~ 2025.02.14.(금)

**| 모집전공 : 미래·문화·글로벌리더십 계열 |**

<b>IT·디자인융합학부</b>	<b>미디어문예창작학과</b>	<b>신설 스포츠학부</b>	<b>세무회계학과</b>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b>사회복지학부</b>	<b>스포츠경영전공</b>	<b>자산관리학부</b>
<b>재난안전학부</b>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b>신설 스포츠지도전공</b>	금융전공 부동산전공
소방방재전공 안전공학전공	<b>상담심리학과</b>	<b>실용음악학과</b>	<b>호텔경영학과</b>
<b>신설 전자정보공학과</b>	<b>일본학과</b>	<b>문화예술경영학과</b>	<b>관광레저항공경영학과</b>
보건의료관리학과	<b>중국어문화학과</b>	<b>미디어영상홍보학과</b>	<b>외식조리경영학부</b>
한방건강관리학과	<b>미국문화영어학과</b>	<b>마케팅·리더십경영학부</b>	외식경영전공 조리서비스경영전공
후마니타스학과	<b>한국어문화학부</b>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전공	
	한국어교육전공 이민·다문화전공	<b>신설 AI·빅데이터경영전공</b>	
		<b>글로벌경영학과</b>	<b>신설 글로벌자율학부</b>

**| 지원방법 |**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 선발방법 |** 자기소개서(80%) + 인성검사(20%)    **| 입학지원센터 |** go.khcu.ac.kr    **| 상담전화 |** 02-959-0000



# 도시재생이 가장 필요할 때



이수준 역  
부동산 수첩

수원 지역의 약 4000세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내용은 기존 계획안에서 인피니티 풀 등 고급커뮤니티시설을 축소하는 대신 일반분양물량을 100여 가구 이상 늘리는 것이다. 또한, 중대형 평수 대신 소형 평수를 더 지어서 전용 59㎡ 세대의 경우 기존 150가구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일반분양 수입을 늘려서 조합원 분담금을 충당하는 의도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조합원 1세대에 돌아가는 금액은 약 10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인근 지역의 미분양 물량, 향후 분양계획 등으로 추산했을 때 특히 소형 면적의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 초과 시장에서의 공급자라면 희일화 된 공급 증가보다는 제한된 공급을 더욱 특화시켜서 장기적인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 타당하다. 규제와 비용 절감 압박에 포기하는 미래가치는 현재가치

로 100% 환산되지 않는다. 강남 3구는 아무리 공급을 늘리고 아무리 취득세를 올려서 진입 문턱을 높여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 강남의 재건축이야말로 일반분양을 더 늘리면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쳐서 높은 경쟁률로 완판될 것이다.

그럼에도 강남 조합원들은 공급을 더 늘리지 않는다. 오히려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전망,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고급화하는 방향이다. 부족한 공급에 따른 높은 가격을 납득시키는 작업. 도대체 왜 강남만 오르느냐는 아우성에 대한 일갈인 셈이다.

시간이 갈수록 재건축 계획은 축소, 정예화, 고급화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단지들이 마무리되면 다음은 이른바 삼풍백화점 이후 세대(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내구성이 개선된 아파트)의 차례가 온다. 그때부터는 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어떤가? 이미 1기 신도시 이후 팍 찬 용적률로 인해서 수익성의 핵심인 일반분양물량의 기대치가 크지 않다. 그나마 수요가 탄탄하다면 얼마 되지 않는 공급이라도 단행하겠으나 인구구조, 혼인율과 출산율 등을 두루 따져 고려

할 때, 지금의 재건축 시대 이후의 주거 시장 역시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증가세도 도심지역에 한정해서 영향이 있다. 지방에서의 재건축은 여러모로 타당성을 찾기 어려워진다.

지금 재건축을 하면 다음 재건축을 기약할 수 없는 시대이다. 그래서 현재의 재건축, 재개발이야말로 현대의 건축기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데 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세제가 여전히 많다. 그 결과 의도치 않게 재건축, 재개발 주체 스스로 하여금 양극화를 오히려 키우게 한다.

지금의 재건축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개개인의 생활패턴에 맞추는 사물인터넷(IoT), 환경, 조경, 예술성, 안전성을 두루 극대화하는 첨단 기술의 각축전이다. 그 과정에서 장기 임대주택, 공공시설을 위한 기부채납 등 재건축의 공공성을 더욱 인식시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은 미래 도시의 비전을 담아내는 과정이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로다. 규제와 비용의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오늘의 운세 1월 15일 (음 12월 1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달성. **48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않아 있다. **60년생**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든지 남 탓하지 마라. **72년생** 민망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 **84년생** 생각이 많으면 많이 걸어보자.

**37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멀리 보고 행동. **49년생** 판단력이 흐려지지 퇴근 후 바로 집으로. **61년생** 헛된 사랑에 얽매지 마라. **73년생** 죽는다는 생각보다는 살아 있는 것에 행복을 갖자. **85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

**38년생** 손품에 땀배기듯이 손조로운 하루. **50년생** 다정다감 병이나 지나친 간섭은 줄이도록. **62년생** 몸에 좋은 보약을 선물 받는다. **74년생** 돌아갈 수 없어서 어제가 더 그리다. **86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39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계획하라. **51년생** 허탕까지 치면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격. **63년생** 꽃이 아름다운 건 잘해야 열매. **75년생** 창업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시작. **87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매사에 최선.

**40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기본 마음으로. **52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이다. **64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도 있으니 감사. **76년생**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 없이는 어렵다. **88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린다.

**41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53년생** 멀리서 귀인이 찾아온다. **65년생** 준비를 해두니 땅 짚고 헤엄치기. **77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으니 좀 더 분발심을 갖자. **89년생**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그런 자식이 탄생.

**42년생** 아랫사람과의 불화가 의심되니 주의. **54년생** 기회가 주어지지 못해서 망설임이 많을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 **66년생** 평화로운 하루. **78년생**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으니 신심으로. **90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살 수 있으니.

**43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타협일 듯. **55년생** 이해를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움직여라. **67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좌불안석. **79년생** 말이 씨가 되듯 뜻한 바를 이루게 된다. **91년생** 새로 시작한 일에 기대가 많으나 실리는 별로 없을 것.

**44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다. **56년생** 강을 건넜어도 미래를 생각해 배는 소중히 간직. **68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마음고생도 그만큼. **80년생**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 **92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자신 탓.

**45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우가 오니 잠시 휴식. **57년생** 어려울수록 마음을 편하게. **69년생** 못 먹는 감 짜르다가 본인이다. **81년생** 남중지추(囊中之錘)로 뛰어난 사람은 항상 돋보인다. **93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 온다.

**46년생** 아침부터 거래가 손조롭다. **58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적으나 성과는 크다. **70년생** 하늘에서 보석비가 내림. **82년생**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이 니 안타까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젊어서 준비. **94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으로.

**47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어보라. **59년생**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법. **71년생** 학수고대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83년생**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지출도 많아지지 자금계획을 신중히. **95년생** 사람 일에 안박(完鑿)이 있을 수 없으니 상대를 이해해야만.

# 정치가 만든 ‘국민연금 괴담’



기지 수첩  
안승진 (금융부)

젊은 세대 사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마다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냐는 이야기가 따라붙는다. ‘기금 고갈’에 대한 괴담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고풍화로 자신이 낼 보험료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면 낸 것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납입액은 앞선 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세금, 연금개혁은 증세로 여겨진다.

‘낸 돈보다 많은 돈을 돌려준다’라는 단순한 약속이 의심받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이해시켜야 할 정치권이 그 의무를 받기하

고 있어서다. 공적연금 제도는 앞서 낸 보험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납입액을 재원으로 한다. 출생률이 계속해 상승하지 않는 한 고갈은 필연적이다. 한국보다 앞서 공적연금을 도입한 국가 가운데 일부는 이미 부족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관련 법안에서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상대방 정당에 연금개혁의 주도권을 내주면 미래에는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 처럼, 받게 될 금액이 턱없이 줄어들 것 처럼 왜곡한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을 통해 청년 세대의 지급을 명문화하고,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런데도 연금개혁의 공을

독점하기 위해 논의를 미루고 있다. 그것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해외 연금개혁 사례가 국민적 양해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한 것과는 정반대다.

위기마다 연금금을 투입하는 것 역시 국민연금 불신에 일조한다. 경제 위기로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연금금은 순매수에 나서며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다. 연금금이 평소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지만, 기업 가치 방어를 위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끌어다 쓰는 만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국민연금이 ‘괴담’이 아닌 ‘신뢰받는 제도’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다. 연금개혁의 시급함이 강조되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 완벽한 합의가 어렵다면, 이미 합의가 된 부분만이라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asj1231@metroseoul.co.kr

# 김상회의 四季

## 을사년 개락



뱀띠의 해! 드디어 을사년 2025년 청사(靑巳) 푸른 뱀의 해가 된다. 물상적으로는 보리썩이 든다고 해석되지만 납음으로 보자면 갑진년과 마찬가지로 복등화(覆燈火)에 해당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심스럽게 키워 가던 불씨에 불이 붙는 형국이다. 복등화가 무엇인가. 덮여진 등잔에 불이 있다는 뜻이니, 처음엔 미약해도 불의 기운이 무르익으면 그다음은 활활 하고 불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좋게 풀이하면 어렵게 참고 있다가 드디어 불이 살아난다고 해석되고, 반대로 경거망동하게 되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향으로 마음을 쓴다면 어려워도 그 끝은 기대할 만하다. 납음오행은 각 음의 특성과 그에 따른 오행의 속성을 연결 지은 개념이다. 생년월일시를 기본으로 운세나 성격을 분석함에 소리의 성격까지 오행으로 분류하여 접목한 데는 우리 선조들의 통찰이 반영된 것이다. 성명학의 기본은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수리체계지만 여기에 더하여 이름을 발음할 때 첫머리 소리의 오행까지 맞춘다. 소리 역시 우주의 기운을 반영한다고 본 까닭이다. 뱀띠생들은 기본적으로 음력 1월 7월 10월이 충살(衝殺)이 되거나 형살(刑殺)을 만나게 된다. 이럴 때는 소송이나 언쟁을 조심해야 하며 같은 뱀띠인 음력 4월에 군겁쟁재(群劫爭財)가 들어오므로 형제간의 재산 다툼이나 의견의 차이로 갈등이 있게 될 확률이 높다. 음력 7월은 반합 반형의 달로서 우선은 좋고 나중이 흉하다고 해석되니 보통은 동업자나 친구, 형제간에 분쟁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여마 기운이 왕하고 부딪히는 총돌수가 왕하니 교통사고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주는 전체 사주팔자와 대운 세운과의 관계까지 살펴야 하니 그렇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언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언의 알파벳을 증가시키며  
http://www.argo9.com

확인도서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회생·파산·워크아웃 '패스트트랙' 소상공인 폐업 후 새출발 돕는다

###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지원 나서 법률 상담, 철거비 지원비 확대 등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취업·재창업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더욱 쉽게 하고, 폐업후엔 창업보다 취업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

빠른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 소득공제한도를 늘리고, 장기가입자가 해약시 세부담은 낮춘다.

중기부는 14일 서울 종로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센터(서울중부센터)에서 오영주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열고 '20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재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후엔 재기지원사업, 자금지원과 연계한다.

신속한 폐업 이후엔 장기 근속하면서 임금근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희망리턴패키지(구직자로의 변화 관리)→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역량 향상 및 취업 알선)→장기근속수당(취업자)·고용촉진장려금(사업주) 및 새출발기금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우대(취업자) 등의 절차를 통해서다. 수당은 희망리턴패키지 95만원, 국민취업지원 월 50만~110만원(최대 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원(12개월 근속) 등 최대 954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을 제공하고 점포철거비 지원액도 늘린다.

점포 철거비의 경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금융기관의 예금·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금리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기관도 기존 3곳에서 올해 우체국, 기업은행, 신한은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소득 1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늘린다. 500만~600만원(소득 4000만원 이하), 300만~400만원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300만~400만원(6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으로 각각 확대한다. 다만 1억원 이상은 20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노란우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부득이하게 해약할 경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기타소득세 15%'를 부과하던 것을 '퇴직소득세 3%'로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영상태 진단 결과 소상공인이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6시간 이상) 및 실전교육(24시간 내외)을 각각 진행한다.

오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국내 벤처기업, 인도 SW 개발자 206명 채용

### 중기부, 취업 연계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를 국내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벤처기업들이 206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201명은 인도 현지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인력이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도 SW 개발자를 모집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에서 3회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사업 주관기관인 벤처기업협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도공과대학등문재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 국내 벤처기업 358개사가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41개사에서 206명의 인도 SW 개발자를 채용했다.

206명 중 201명은 한국에 직접 오지 않고 인도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원격채용으로, 비자 발급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신속하게 기업에 연계했다. /김승호 기자

# 기보, 정보공개 종합평가서 '최우수 등급'

### 정보제공 등 국민 알권리 충족 인정

기술보증기금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14일 기보에 따르면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매년 4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이 대상이다.

기보는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를 위해 지난해 해 동안 ▲정보공개 업무처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원문공개 열람분석을 통한 수요자 요구에 맞춘 원문정보 공개 ▲개방형 포맷을 적용한 적극적인 사전정보공표 등록 ▲홈페이지 방문고객 분석을 통한 정보제공과 모니터링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처음 실시된 2019년 이후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국민 중심의 투명경영 실천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김승호 기자

# "노란우산 가입하고 3만원 쿠폰 받으세요"

### 중기중앙회, 한 달간 설맞이 프로모션

중소기업중앙회가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노란우산 설맞이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1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표는 프로모션 기간에 노란우산공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면 네이버페이 3만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다. 현재 노란우산에 가입돼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약 177만 명에 달한다.

월부금액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폐업, 노령, 사망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공제금과 연복리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돼 최대 99만원까지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노란우산 가입 후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혜택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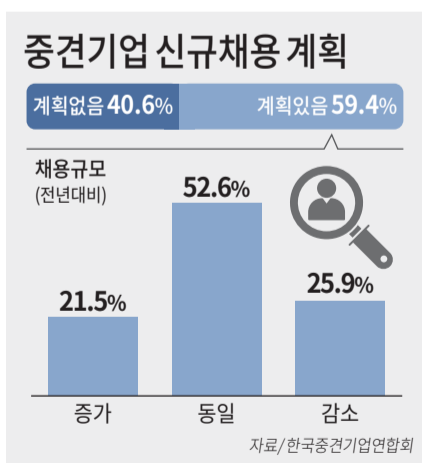
# 중견기업 41% "올해 신규 채용 계획 없어"

### 중견기업 800개사 대상 설문조사 채용계획 축소에 '채용 한파' 예상

국내외 경제가 '시계제로'인 상태에서 중견기업 취업 시장에도 한파가 불고 있다.

10곳 중 4곳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계획이 있다'고 밝힌 중견기업 중에선 '줄이겠다'(25.9%)는 곳이 '늘리겠다'(21.5%)는 곳보다 많았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채용하겠다'는 곳은 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2.6%였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14일 내놓은 '2025년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신규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59.4%가 '있다', 40.6%는 '없다'고 각각 밝혔다.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중견기업들은 ▲실적 악화 및 수요 감소(40.7%) ▲비용 절감(30.1%) ▲경기

악화 우려(15.4%) 등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들은 '기준 인력 이탈 충원'(37.3%), '사업 확장, 신사업 추진'(35.3%), '실적 개선 및 수요 증가'(15.7%) 등이 주요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의 91.1%는 '기술·생산직(31.8%)', '연구·개발직(22.9%)', '영업·마케팅직(16.2%)', '사무·관리직(15.0%)'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인력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 지원 사업 확대(25.7%) ▲세제 지원 확대(23.2%) ▲고용 유연성 제고(17.5%)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강화(16.6%)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호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6 | 해질 / 17:37

1월 15일 (수)  
음력 : 12월 16일

수도권 날씨: -6 ~ -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1/-2, 동두천 -10/-1, 가평 -12/-2, 파주 -11/-2, 서울 -6/-1, 양평 -7/0, 인천 -6/-2, 수원 -4/-1, 용인 -4/-1, 평택 -7/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 언제 잡히나...이번 주말이 '골든 타임'  
▲中 춘제 특별분송 시작...40일간 90억 명 이동 전망 /사진 뉴스시스

▲美 철강사 CEO "US스틸 인수하고 싶다...일본은 약"  
▲EU, 내달 3일 NATO·영국과 국방 회담...트럼프 2기 대응

▲日정부 "北미사일, 日영역·EEZ로 날아오지 않아...한미일 협력 대응"  
▲전쟁시 군사 지원 담기나...러시아, 이란과 오는 17일 새 조약 체결





식품업계  
레트로열풍  
옛날 간식 돌아온다  
L1



Life

수주 잦았  
신약 상업화  
제약·바이오 '훈풍'  
L2



# “경험자에게 듣는 가치있는 조언... 인생 바꿀 ‘멘토’ 만나세요”

## 속깊은 인터뷰

### 이병희 오디바이스 대표

누구에게나 멘토가 필요하다.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 길을 잃기 십상인 디지털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설 때, 나보다 앞서 경험한 누군가의 안내와 응원이 전혀 다른 길을 만들 수 있다. 공감과 격려 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시대. 디지털 교육 컨설팅 플랫폼 ‘오디바이스’는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 내는 이 ‘가치’에 주목했다.

오디바이스(Audivice)는 음성(오디오·Audio)와 조언(어드바이스·Advice)의 합성어로, 음성 기반 1대1 진로·진학 멘토링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지난 2022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국내외 90개 대학, 200여개 학과, 500여명의 대학생 멘토가 활동하고 있다.

오디바이스는 교육에 대한 지역간 격차와 정보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스타트업이다.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 선 모든 사람이 오디바이스 플랫폼을 통해 멘토링 서비스를 ‘공공재’처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이병희 오디바이스 대표는 “사람이 가진 경험과 재능을 활용한 멘토링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사회가 가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러한 가치를 IT 플랫폼으로 연결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진학·진로·커리어 등 인생 전반의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 -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오디바이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대학, 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멘토를 검색할 수 있다. 수시·정시, 재수·현역, 서울·지방 등 조건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선택에 도움을 준다. 멘토를 선택하고 고민 내용을 미리 적어두면 멘토가 읽어본 후 상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멘토가 상담을 수락하면 매칭이 되고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35분간 상담이 이루어진다. 상담 내용은 모두 텍스트로 저장이 되고, 상담 후 인공지능(AI)이 내용을 요약해 전달한다.”

#### - 입시 전문가들도 활동 중인데.

“유명 입시 전문가들의 상담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성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 가능 대학, 최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오디바이스 이병희 대표가 2일 서울 마포구 오디바이스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기 전 사진 촬영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 대학생 멘토 직접 선택해 오디오 상담 경험 바탕으로 대학입시에 실질적 도움 검증된 멘토 선정... 기본윤리 정기평가도

지원 전략을 제공한다. 대학생 멘토가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컨설팅이다.”

#### - 왜 화상이 아닌 음성 기반인가.

“개인적인 고민 상담이라는 서비스 특성상 화상보다는 대화 자체에 집중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주된 이용자들이 중고생들인데, 사실 화상 기능이 있더라도 90% 이상 카메라를 끈다. 물론 공유해야 할 자료는 화면 공유를 통해 서로 보면서 멘토링을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현재 대치동에서 대입 전문가의 상담은 학기 당 350~400만원 수준이다. 오디바이스 플랫폼에서는 1대1 대학생 멘토링을 5만5000원(35분), 입시 컨설팅은 22만원(50분)에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 멘토링에 대한 수요가 높다. 멘토의 경험을 바탕으로 멘티의 상황, 고민에 맞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

#### - 대학생 멘토링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의 대학입시 자체가 너무 어렵다. 내신과 수능 뿐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되는 수행평가, 세특, 자율활동 등 학생 혼자 알아서 하기에는 버거운 내용들이 많다. 평소 학습 계획을 설정해 관리하고, 꾸준히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대학생들을 찾는 학생과 학부모가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직접 검증된 대학생 멘토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오디바이스가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

#### - 만족도는 어떤가.

“기대했던 것보다 폭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 멘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교재, 인강을 추천하거나 생기부 관리법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한다. 멘토와 멘티 사이에 형성되는 라포(Rapport·사람과 사람 사이 상호신뢰관계를 뜻하는 심리적 용어)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만들고 있다.”

#### - 멘토에 대한 검증이 관건일 것 같다.

“오디바이스는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멘토가이드’를 만들었다. 기본 윤리를 세우고 가이드의 목적과 가치를 통해 동기부여를 한다. 개별적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 멘토를 선발하고, 멘토 5대 역량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 상담 후 멘토들에 대한 평점과 리뷰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화 되는 것이 강점이다.”

### 지자체, 학교 등 30여곳과 멘토링 계약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도움 되고파 올해부터 직접 찾아가는 오프라인 상품도 유학생, 취업, 이직 등 서비스 확대 계획

오디바이스 서비스는 80%가 기업간거래(B2B)로 이루어진다. 지난해 오디바이스는 지자체 25곳, 학교 10곳, 기업 4곳 등 총 30여곳과 대학생 멘토링 계약을 맺었다. 올해는 300여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정보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지방은 물론 수도권, 기대하지 않았던 학군지에서도 오디바이스를 찾고 있다.

#### - 지자체들의 수요가 높다

“지자체마다 자체 교육 보조금 예산이 있고, 상당수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들이 직접 검증된 대학생 멘토를 찾고, 1대1 매칭을 해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디바이스가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컨설팅이 시급한 지방에서 먼저 찾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노원구, 서초구를 거

쳐 강남구까지도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 - 오디바이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디바이스는 사람이 가진 경험과 재능이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고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멘토가 있고 없고에 따라 한 사람의 미래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링 서비스는 수도나 가스처럼 특정 계층이 아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올해 새롭게 생기는 건 뭐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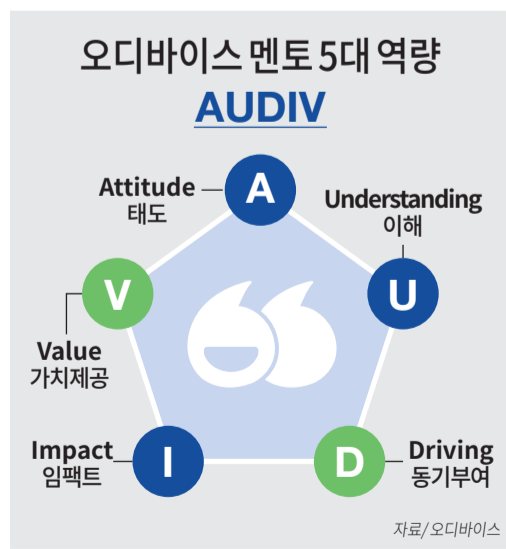
“올해부터 오프라인 상품을 출시한다. 하루 동안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대학 전공 박람회다. 서울 강남구는 물론 수도권, 지방의 지자체와도 계약이 진행 중이다. B2B뿐 아니라 B2C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1~2회 받고 끝내는 멘토링이 아니라 대학입시라는 긴 여정에서 지속적인 1:1 관리를 받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에게 주 1회 정기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월 15만원대로 제공할 예정이다.”

#### - 서비스 확대 계획은.

“유학생 멘토링과 컨설팅도 전문적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유학원에서는 해줄 수 없는, 유학생 멘토가 직접 경험한 가감 없는 평가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진학 이후 취업과 이직 등을 포함하는 커리어 부분도 멘토링이 필요한 분야다. 현재 진학상담을 해주고 있는 멘토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로 나가면 커리어 분야 멘토로 성장할 수 있다.”

#### - 오디바이스의 최종 목표는.

“이제는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멘토가 필요한 시대다. 진로와 커리어는 물론 인생 전반에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마인드 멘토링 서비스까지,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분야다. 오디바이스는 그 분야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대표 기업이 되고 싶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日 니무라·오노 코치 영입...코칭스태프 구성 완료  
▲정성 쏟은 샌프란시스코...한국서 100일간 훈련에만 매진한 이정후 /사진 뉴스스

▲‘공식전 쏜경기 출전’ 김민재, 아킬레스건 문제로 휴식 가능성  
▲‘은퇴’ 구자철 ‘韓 축구 최초 올림픽 메달 단 멤버로 기억되고파’

▲이태희, 5년만에 우승 도전...“한국오픈·KPGA 선수권 정조준”  
▲대한럭비협회, 심영복 회장 체제 출범...4년 임기